

석사학위논문

X세대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디지털 조력자 조절효과 -

2024년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스마트융합컨설팅학과

스마트융합컨설팅전공

조 관 훈

석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주형근

X세대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디지털 조력자 조절효과 -

The impact of the level of digital information use on life
satisfaction among Generation X disabled people
- moderation effects of digital assistants -

2023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스마트융합컨설팅학과

스마트융합컨설팅전공

조 관 훈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주형근

X세대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디지털 조력자 조절효과 -

The impact of the level of digital information use on life
satisfaction among Generation X disabled people

- moderation effects of digital assistants -

위 논문을 건설링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건설링대학원

스마트융합건설링학과

스마트융합건설링전공

조관훈

조관훈의 컨설팅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3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정 진 택 (인)

심 사 위 원 이 형 용 (인)

심 사 위 원 주 형 근 (인)

국 문 초 록

X세대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디지털 조력자 조절효과 -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스 마 트 융 합 컨 설 텅 학 과
스 마 트 융 합 컨 설 텅 전 공
조 관 훈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4차 산업혁명은 대한민국을 정보화 사회로 이끌어 가고 있다. 정보화 사회의 중심에는 정보 시스템이 있으며 이는 의사소통 도구뿐만 아니라 경제와 사회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정보 불평등으로 인하여 장애인과 저소득층 및 농어민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정보 소외 계층은 여전히 존재한다.

정보 소외 계층인 장애인 중에서 디지털정보화 시대 태동기를 함께하여 디지털 기술에 대한 친숙도와 활용도가 높은 X세대 장애인들이 경험하는 정보격차를 이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정보화 역량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조사하며 디지털 조력자 역할을 분석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X세대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활

용 수준을 조사하여 이를 평가하고 둘째, X세대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셋째, 디지털정보화 활용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디지털 조력자 조절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범위는 첫째, X세대 장애인, 디지털정보화, 삶의 만족도 등과 관련된 선행연구와 이론적 배경을 조사하고 둘째, 2022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서 얻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X세대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특성을 분석하며 셋째, 실증분석을 통해 X세대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디지털 조력자 역할을 확인한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X세대 장애인의 정보격차를 이해하고 디지털정보화 역량과 삶의 만족도 사이의 관계를 더 깊이 탐구하여 정보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X세대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은 부분적으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PC 및 모바일 검색, 이메일, 콘텐츠 서비스 이용이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디지털 활동 중에서 사회적 관계 서비스 이용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결과가 의외로 나타났는데 X세대 장애인이 사회적 관계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거나, 사회적 관계 서비스 이용을 통해 얻는 만족감이 크지 않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온라인 사회참여와 관련된 활동은 X세대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X세대 장애인이 사회참여 서비스를 활용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디지털 조력자의 조절효과는 온라인 네트워킹 활동에서만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었는데 이는 온라인 네트워킹 활동은 X세대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쉽지 않음을 의미할 수 있다. 이렇듯 디지털 조력자 역할이 일부 활동에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것은 디지털 조력자들이 장애인들의 디지털 기술 습득을 지원하고 적절한 정보와 도구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 연구의 한계점을 고려하여 향후 연구 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할 수 있다.

X세대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다른 세대의 장애인과 비교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고 X세대 장애인의 보편적인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디지털정보화 접근 수준과 디지털정보화 역량 수준 및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을 포함한 여러 방면을 연구해야 한다.

또한 성별, 학력, 주거 형태, 수입 등 통제변수를 고려하여 더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 설문조사 이외에 면접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자료를 확보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들이 시행될 경우 X세대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과 삶의 만족도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이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장애인, 삶의 만족도, X세대,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 디지털
조력자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 배경	1
제 2 절 연구 목적	3
제 3 절 연구 내용 및 범위	4
제 2 장 이론적 배경	6
제 1 절 세대 개념과 X세대 특성	6
1) 세대 개념	6
2) 세대 분류	7
3) X세대 특성	9
제 2 절 장애인과 삶의 만족도	11
1) 장애인 개념	11
2) 삶의 만족도 개념	14
제 3 절 디지털정보격차	18
제 4 절 디지털 조력자	20
제 5 절 선행연구 고찰	21
1) 장애인 삶의 만족도	21
2) 장애인 디지털정보화 활용과 삶의 만족도	24
3) 장애인 디지털 조력자와 삶의 만족도	26
제 3 장 연구 방법	28
제 1 절 연구모형 및 가설	28
1) 연구모형	28
2) 연구가설	29

제 2 절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31
제 3 절 측정용 도구	32
1) 독립변수 :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	32
2) 종속변수 : 삶의 만족도	34
3) 조절변수 : 디지털 조력자	34
제 4 절 분석 방법	35
제 4 장 연구 결과	37
제 1 절 연구 대상의 일반 특성	37
1) 연구 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37
2) 연구 대상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특성	39
제 2 절 주요 변수의 기술적 통계	40
제 3 절 측정도구 검증	41
1) 신뢰도 분석	41
2) 상관관계 분석	42
제 4 절 가설검증	43
1) 회귀모형 분석	43
2) X세대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과 삶의 만족도 관계	45
3) 디지털 조력자 조절효과 분석	46
제 5 장 결론	49
제 1 절 연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49
제 2 절 연구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51
참 고 문 헌	53
ABSTRACT	62

표 목 차

[표 2-1] 세대 개념에 대한 선행연구	8
[표 2-2] 선행연구 세대 분류	9
[표 2-3] X세대 특성을 연구한 선행논문	11
[표 2-4] 장애 개념 정리	14
[표 2-5] 삶의 만족도 선행논문	17
[표 2-6] 디지털정보격차 선행논문	20
[표 2-7] 장애인 삶의 만족도 선행논문	23
[표 2-8]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활용과 삶의 만족도 선행논문	25
[표 2-9] 장애인 디지털 조력자와 삶의 만족도 선행논문	27
[표 3-1] 인터넷 이용기기 비율 (2022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한국자능정보사회진흥원)) ...	30
[표 3-2]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과 삶의 만족도 연구가설	31
[표 3-3]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 디지털 조력자, 삶의 만족도 가설	32
[표 3-4] 독립변수 :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 문항	33
[표 3-5] 종속변수 : 삶의 만족도 문항	34
[표 3-6] 조절변수 : 디지털 조력자 문항	35
[표 4-1] 2022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장애인 세대별 구성	37
[표 4-2] 연구대상자(X세대 장애인) 인구사회학적 특성	38
[표 4-3] 연구 대상자(X세대 장애인) 디지털정보화 활용 특성	39
[표 4-4] 한 달 내 인터넷 사용자 중 인터넷 이용 일수	40
[표 4-5] 주요변수 기술통계분석	40
[표 4-6] 주요변수 신뢰도분석	42
[표 4-7] 상관관계분석	43
[표 4-8] 위계적회귀분석 ANOVA	44
[표 4-9] 위계적회귀분석 모형 요약	45
[표 4-10] X세대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과 삶의 만족도	45
[표 4-11]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과 삶의 만족도-디지털 조력자 조절효과 ...	47

그림 목 차

[그림 3-1] 연구모형	28
[그림 4-1] 네트위킹 활동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디지털 조력자 상호작용 ...	48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오늘날 대한민국은 인터넷과 ICT 기술의 발전으로 4차 산업혁명과 정보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첨단 정보통신기술은 기존 산업과 결합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혁명적인 변화를 불러오고 있으며 기술적 진보는 사회 구성원들의 생활 방식을 혁신하고 다양한 서비스에서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고 있다(김지혜, 2021).

정보화 사회는 정보를 생산도구로 활용하여 재화 및 근로활동, 다른 정보 및 지식을 생산하고 유통함으로써 정보 가치가 사회활동 및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는 사회로 정의된다(박경미, 2018).

그러므로 정보 시스템은 일상생활 중에 의사소통 수단이고 정보획득의 수단이며 사회·경제적 행위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이민영, 2006).

정보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물리적 통신망 구축과 이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1984년 ‘데이콤’(1986년 ‘천리안’이라는 이름으로 개편)의 서비스를 시작과 1988년 한국통신(현 KT 전신)의 ‘케텔’(KETEL, 이후 ‘하이텔’로 개편) 서비스 합류로 인터넷 서비스의 전 단계인 PC통신 서비스가 본격화되었다(전길남, 2011). 당시 온라인 통신망 ‘하이텔’은 X세대들의 첨단 하이테크 문화였다(이우혁, 1995).

X세대는 1964년부터 1979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로(통계청 통계플러스, 2022) 2022년 현재 44대에서 58대까지의 연령대를 포함한다. 우리나라에서 PC통신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1980년대 후반은 X세대 구성원의 중, 고, 대학, 청년층 시기로 이들은 ‘PC통신 서비스’를 활발하게 이용하였다(서이중·민경배, 2005).

한편 우리나라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 또한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고 1985년에는 19%의 고속 성장을 이루고 정보화 사회로의 도약에 촉진제가 되었다(조동원, 2015).

이렇듯 X세대는 정보화 산업의 근간이 되는 디지털 기술의 태동을 지켜보았고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성장한 세대로서 디지털 기술에 대한 친숙함과 활용 능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높은 인터넷 보급률과 첨단 기술의 확산으로 세계 최고의 디지털 경제 국가 중 하나가 되었지만, 디지털 불평등은 여전히 존재한다. 디지털정보격차는 개인, 가정, 기업 또는 지역 간에 정보통신기술(ICT)의 접근성, 역량 및 활용 능력의 격차를 의미하고 이러한 격차는 소득, 교육, 나이, 지리적 위치 등의 요인에 기인할 수 있다(김지정, 2023).

‘2022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서는 4대 정보 취약계층으로 고령층,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을 정하였고 전통적으로는 장노년 계층과 장애인 계층을 들 수 있으며 장애인 계층의 정보격차는 그 해결의 어려움으로 앞으로 더 큰 정부의 참여와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보가 재산이 되는 정보화 사회에서 디지털정보 활용 능력은 자본을 취득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수 조건이며, 컴퓨터,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은 장애인들의 건강과 복지를 향상하는 효과적인 도구로 자리 잡았다(심선화·정진화·유재호, 2010).

디지털정보화 역량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 중 하나는 디지털정보화 역량이 높을수록 PC 및 모바일기기를 이용하여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활동에는 검색·이메일·콘텐츠 서비스, 사회관계 서비스, 정보공유 서비스, 생활 서비스, 정보생산 활동, 공유활동, 네트워킹 활동, 사회참여 활동, 경제 활동 등이 포함된다(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

앞서 언급한 X세대는 모든 구성원이 PC통신 서비스를 이용한 것은 아니었다. X세대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같이 경험한 세대로 성장기에는 컬러 TV의 영향을 받았고 이후 컴퓨터에 심취하기 시작했으며 성인이 되어서는 인터넷 등을 경험하여 베이비붐세대와는 달리 다양한 매체를 경험하였다(정성호, 2003). X세대의 가장 큰 특징은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디지털 미디어를 학습 및 경험을 통해 얻은 것인데, 미디어 환경에서의 경험

은 X세대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로 꼽힐 수 있다. 베이비붐세대와 X세대는 성인이 되어 처음 디지털 기술을 접하게 되어 디지털 소비에 익숙하여 지려고 노력한 ‘디지털 이민자’(전상민, 2023)라고도 불렸다.

아날로그 시대에서 젊은 시절과 중년 시절을 보낸 정보 취약계층은 디지털 기술 시대의 도래와 함께 디지털 기술에 대한 학습과 수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들은 디지털 기술에 대한 동기부여가 부족하거나 기술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정보 취약계층이 디지털 기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격려하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해 주는 사회적 지원체계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디지털 조력자라는 역할이 필요하며,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보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Renaud & van Biljon, 2008).

장애인의 정보격차를 연구한 대부분 선행논문은 전 연령대 또는 중고령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장애 유형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유우·마성혁·김자영·조규형(2022)의 연구에서는 일과 경력에 대한 선행연구는 기대수명이 70세인 베이비붐 세대에 집중된 반면, 현재와 앞으로 다가올 중장년 세대인 X세대는 학계의 관심을 충분히 받지 못하였으며 기대수명이 85세로 연장된 X세대 중장년 근로자의 이전 가능한 기술과 지속 가능한 경력에 대해 생애 경로 곡선 관점에서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했다. 그러므로 X세대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과 삶의 만족도 관계, 그리고 성인 이후에 디지털 환경을 접한 X세대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활용에 있어서 디지털 조력자 조절효과를 분석하여 X세대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이론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 목적

우리나라 X세대는 아날로그 시대에 태어나 디지털 태동기를 함께 했으며 성인이 된 후에 디지털 기술을 학습하여 아날로그 사회에서 디지털 사회로 이민 온 세대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성인이 되어 디지털 기술을 익

히고 아날로그와 디지털 환경을 모두 경험한 X세대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디지털 조력자 조절효과를 확인하는 데 있다.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X세대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을 알아본다.

둘째, X세대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활용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셋째, X세대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활용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디지털 조력자 변인이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본다.

이러한 실증연구로 도출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X세대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사점 및 지속적인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제 3 절 연구 내용 및 범위

이상에서 논의한 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 연구와 실증연구를 병행하였으며 그 대상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 논문, 학술지 연구 논문, 관련 이론, 정부 통계자료, 공식력 있는 간행물 등을 고찰하였다.

둘째, 정보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 설문의 통계자료 중에 장애인 계층의 X세대(64~79년생)를 2차 자료 분석하여 표본의 일반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장 서론은 연구의 배경 및 목적과 연구의 내용 및 범위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제2장 이론적 배경은 세대 개념 및 X세대 특징, 장애인 이론, 삶의 만족도 개념, 디지털정보화 개념, 디지털 조력에 대한 문헌 고찰을 통하여 X세대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디지털 조력자 조절효과를 연구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을 기술하였다. 제3장 연구 방법은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연구모형 설계와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주요 변수를

정의하였으며 원자료를 2차 자료 분석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4장 연구 결과는 실증분석 단계로 수집된 자료를 통해 표본의 특성을 파악하고 측정 도구 및 가설을 검증하였다. SPSS 22.0으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여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였고 신뢰도 분석과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변수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검증하였으며 위계적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가설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기술하였다. 제5장 결론은 연구 결과를 요약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세대 개념과 X세대 특성

1) 세대 개념

세대는 일반적으로 같은 시대를 살면서 형성된 문화적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세대 개념을 최초로 정의한 사회학자 Mannheim(1952)은 세대는 단순히 동일한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의 집단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같은 역사적 체험을 공유한 공통 의식을 갖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정의하였고(허은정·김우성, 2003), Kertzer(1983)는 세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첫째, 조부모-부모-자녀 세대와 같이 친족 계보에서 동일 세대에 속하는 사람들, 둘째,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 동일 생애주기 단계에서 동일한 역사 사건을 경험한 출생 코호트, 셋째, 청소년 시기, 대학생 시기와 같이 동일 생애주기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의미, 마지막으로, 1914년 세대, 전쟁 전·후 세대와 같이 특정 역사적 시기에 생존한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했다.

이후 많은 연구에서 코호트 시각으로 세대를 구분하고 그에 따라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이는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 안정적인 특징이 있으며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보완할 수 있는 가치관과 생활양식을 포함하였기 때문이다(Peiser, 2000).

장윤정·이채정(2023)은 단순히 나이만으로 세대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출생 코호트의 정치, 사회, 문화, 환경적 차이가 현재 관찰되는 나이별 행복감의 차이를 만들 수 있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나이 정보를 연속변수 형태로 분석에 포함하기보다 세대 집단 구분을 통해 비교하는 시도가 이점을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X세대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를 연구하는 본 논문에서는 코호트 시각으로 세대를 분류하였다.

2) 세대 분류

개인이 공통으로 겪은 삶의 경험을 기준으로 하는 코호트별 세대 분류는 동일시기에 태어나 비슷한 사건을 겪고 다른 세대와 구별된 가치관을 가질 가능성이 크므로 공통적인 가치관을 공유할 가능성이 높다(Peiser, 2000). 한국전쟁을 비롯한 남북분단, 경제 성장, IMF 금융위기, 시민운동 등의 다양한 변화를 경험한 우리나라는 세대 간 경험의 차이가 크고, 이에 따라 세대 갈등이 현재까지도 존재한다는 것이 조성남·박숙미(2002)의 연구 결과이며 이러한 급격한 발전과 변화로 인해 세대 간 차이와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국내 학자들은 코호트별 세대 구분 기준을 다소 다르게 설정하고 있다. 정진민(1992)은 한국전쟁을 기준으로 전전 세대와 전후 세대로 구분하였고 홍덕률(2003)은 한국의 현대사를 기준으로 산업화 세대, 민주화 세대, 정보화 세대로 구분하였으며 박재홍(2005)은 일제강점기 식민지 경험 여부와 한국전쟁과 같은 결정적인 집단 경험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황상민·양진영(2002)은 각 집단이 공유하는 역사적인 사건이나 행동 양식과 함께 생애 주기별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해방 전후 복구 세대와 근대화 세대 및 경제부흥기 세대, 민주화 세대로 구분하였다.

미국 퓨리서치센터는 현재 인구 세대를 사일런트(Silent)세대(~1945), 베이비붐세대(1946~1964), X세대(1965~1980), 밀레니얼세대(1981~1996), Z세대(1997~)로 구분하고 있다(Pew Research Center, 2019). 주로 X세대의 자녀 세대를 Z세대로, 베이비붐세대의 자녀 세대를 밀레니얼세대로 본다. 그러나 시대와 연구자에 따라 사회적 경험을 공유하는 중요한 사건이나 특징을 달리 정의하게 되며 구분된 세대 집단 수와 구분 기점도 달라진다. 따라서 한국에는 명확하고 합의된 세대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장운정·이채정, 2023).

[표 2-1] 세대 개념에 대한 선행연구

연구자	내 용
Kertzer(1983)	세대를 구분하는 기준 제시 •친족 계보에서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사람들 •동일한 역사적 사건을 경험한 출생 코호트 •동일한 생애주기 단계에 있는 사람 •특정 역사적 시기에 생존한 사람들
Peiser(2000)	코호트별 세대 분류는 같은 시기에 태어나 비슷한 사건을 겪어 다른 세대와 구별된 공통적인 가치관을 공유할 가능성이 높다
조성남 외(2002)	한국전쟁, 남북분단, 경제 성장, IMF 금융위기, 시민운동 등 세대 간 경험의 차이가 크고, 이에 따라 세대 갈등이 현재까지도 존재함
정진민(1992)	한국전쟁을 기준으로 전전 세대와 전후 세대로 구분
홍덕률(2003)	산업화 세대, 민주화 세대, 정보화 세대로 구분
박재홍(2005)	일제강점기 식민지 경험 여부와 한국전쟁과 같은 결정적인 집단 경험을 기준으로 구분
황상민(2002)	해방전후복구세대, 근대화세대, 경제부흥기세대, 민주화세대로 구분
장윤정 외(2023)	한국에는 명확하고 합의된 세대 구분이 존재하지 않음

[본 연구자 정리]

서울대인구학연구실은 1차 베이비부머세대를 1955~1964년생으로, 2차 베이비부머세대를 1965~1974년생으로, X세대를 1975~1985년생으로, Y세대를 1986~1996년생으로, 밀레니얼세대를 1997~2010년 초반으로 구분하였고(조영태, 2021) 통계청은 시니어세대를 1954년 이전 생, 베이비붐세대를 1955~1963년생, X세대를 1964~1979년생, M세대를 1980~1994년생, Z세대를 1995~2005년생으로 구분하였다(KOSTAT 통계플러스 2022년 봄호).

국회미래연구원(2020)은 베이비붐세대를 1956~1964년생, X세대를 1965~1979년생, M세대를 1980~1994년생, Z세대를 1995~2007년생으로 통계청의 세대 구분과 유사하게 구분하였다.

서울특별시 정책보고서(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22)에서도 베이비붐세대를 1950~1964년생, X세대를 1965~1979년생, M세대를 1980~1994년생, Z세대를 1995~2004년생으로 통계청의 세대 구분과 유사하게 구분하였다.

[표 2-2] 선행연구 세대 분류

연구자	내	용
Pew Research Center(2019)	~1945 1946~1964 1965~1980 1981~1996 1997~	Silent세대 베이비붐세대 X세대 밀레니얼세대 Z세대
통계청 통계개발원(2022)	1954년 이전 1955~1963 1964~1979 1980~1994 1995~2005	시니어세대 베이비붐세대 X세대 M세대 Z세대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조사, 2020)	1956~1964 1965~1979 1980~1994 1995~2007	베이비붐세대 X세대 M세대 Z세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2022)	1950~1964 1965~1979 1980~1994 1995~2004	베이비붐세대 X세대 M세대 Z세대
서울대인구학연구실 (조영태, 2021)	1955~1964 1965~1974 1975~1985 1986~1996 1997~2010	베이비부머세대 2차 베이비부머세대 X세대 Y세대 밀레니얼세대

[본 연구자 정리]

3) X세대 특성

X세대는 캐나다 작가가 1991년 출간한 소설 『X세대』에서 처음 언급된 용어로, 이전 세대와는 다른 특성을 보였지만 명확한 정의가 없다는 의미에서 X를 사용하였다. 국내에서는 대중문화에 대한 신세대의 취향이 두드러지면서 기존 세대와는 독특한 구분이 있다는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대중매체의 발달과 함께 성장하였고 하이테크 서비스를 즐기는 세대로 정의된다(김형돈·신이수·정창윤·최은호, 2022). Barber(2013)의 연구에서는 X세대를 디지털 기술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이전에 성인이 되어 디지털 소비에 익숙해지기 위해 노력한 ‘디지털 이민자’ 특성을 가졌고

부모, 전통적 미디어,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고 사회화를 경험하였다고 했다.

X세대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성장하여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며 시대적 특성에 따라 교육비 지출이 많고, 자신을 위해서 과감하게 지출하는 모습도 보인다(권정윤·김난도, 2019). 또한 이들은 이전 세대와 달리 디지털 소비에 익숙하며 정보 기반 미디어보다는 오락 기반 미디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기존 공신력 있는 정보 기반 미디어(뉴스, 신문 등)보다는 SNS와 검색 포털을 중요시한다(Dou et al., 2006).

우리나라 X세대 특성으로는 6.10 항쟁을 겪고 민주화를 경험한 세대로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의식이 강하고 동시에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는 경향도 보이며(김유나·박애리, 2022) 다른 세대와 달리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혼합 시기를 보낸 디지털 유목민 또는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특성을 가진다(최셋별, 2018). 황주성(2023)은 우리나라 X세대(1965~1981)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 특성을 개인주의와 자기의식이 강하고 인터넷 기술 이전에 출생하고 PC 환경에서 성장했으며 구매 시 온라인 정보, 추천, 평점에 민감하며 학습을 통해 IT기술에 대한 노하우를 습득한 세대라고 정의했다.

우리나라 X세대 특성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첫째,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혼합 시기를 보냈고(최셋별) 둘째, 대중매체 발달과 함께 성장하여 하이테크 서비스를 즐기며(김형돈) 셋째, 인터넷 기술 이전에 출생, PC 환경에서 성장했으며 구매 시 온라인 정보, 추천, 평점에 민감하며 학습을 통해 IT기술에 대한 노하우를 습득하였다고 했다(황주성).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X세대의 출생 시기는 통계청(1964~1979), 국회미래연구원(1965~1979),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1965~1979)에서 제시한 출생 시기를 참고하였으며 그 중 통계청 기준인 1964년~1979년을 따르기로 하였다.

[표 2-3] X세대 특성을 연구한 선행논문

연구자	내 용
황주성(2023)	•개인주의와 자기의식이 강함 •구매 시 온라인 정보, 추천, 평점에 민감 •인터넷 기술 이전에 출산, PC환경에서 성장 •학습을 통해 IT기술에 대한 노하우를 습득한 세대
최셋별(2018)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혼합 시기를 보낸 디지털 유목민 또는 디지털 네이티브
김형돈 외(2020)	대중매체의 발달과 함께 성장하였고 하이테크 서비스를 즐기는 세대
Barber(2022)	•디지털 기술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이전에 성인이 되어 디지털 소비에 익숙해지기 위해 노력한 ‘디지털 이민자’ •부모, 전통적 미디어,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고 사회화를 경험
Dou(2006)	•정보 기반 미디어보다는 오락 기반 미디어를 선호 •기존 공신력 있는 정보 기반 미디어보다 SNS와 검색 포털을 중요시함
김유나 외(2022)	•6.10 항쟁을 겪고 민주화를 경험한 세대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의식이 강하고 동시에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는 경향도 보임

[본 연구자 정리]

제 2 절 장애인과 삶의 만족도

1) 장애인 개념

‘장애’라는 용어를 학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의학적 접근법, 기능적 제한 접근법, 사회정치학적 접근법 등 세 가지 개념적 틀을 사용하는데, 의학적 접근법은 다양한 장애 유형의 의학적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를 강조하고 기능적 제한 접근법은 가장 흔한 접근법으로 개인의 활동 제한을 강조하며 사회정치학적 접근법은 장애를 인간과 환경 사이 상호작용 산물로 본다(Bernell, 2003). Grönvik(2009)은 장애를 주관적장애, 기능적장애, 행정적장애, 사회적장애, 관계적장애라는 다섯 그룹으로 나누고 사회적 정의로 ‘장애는 손상을 입은 사람들에게 대한 억압과 장벽이다.’라고

정의했다.

통상적인 장애 개념은 다양한 관점과 접근방식에 따라 해석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980년 국제장애인분류체계(ICIDH-1)를 시험 발표한 후 1993년에 ICIDH-2로 업그레이드하면서 장애에 대한 이해를 단순히 의학적 조건이나 신체적 차이로 한정하지 않고 이에 따라 나타나는 기능 및 구조 제한, 그리고 이러한 제한이 개인의 활동과 행동 양식에 미치는 영향, 더 나아가 이것이 사회적으로 개인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드는 전체적인 과정으로 바라보는 관점으로 정의하였다(조한진, 2011). 2001년 발표한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CF)에서는 장애의 독립적인 정의와 기준은 제시하지 않는 대신 ‘신체 기능 및 구조’와 ‘활동’ 및 참여 등 세 가지 측면에 의해 장애의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변화시켰다. 장애 기준을 ‘질병 결과’로 인한 상태 구분보다는 ‘건강의 구성요소’ 상태 구분으로 정의하게 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신체 기능 손상 및 활동 제한 그리고 참여 제약 등 다양한 형태를 포괄하는 개념이 포함된 것이다(황수경, 2004).

UN은 2006년 장애인권리협약을 발표하였는데 ‘장애 개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하며 개인이 겪는 신체적 제한과 이러한 제한이 사회적 참여에 미치는 영향 사이의 관계를 반영하고 이 관점은 장애를 단순히 신체적 상태로만 보지 않고 사회적으로 완전하고 효율적인 참여를 방해하는 사회적 태도와 환경적 장벽과의 상호작용으로 이해한다.’라고 했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정의는 개별법의 입법목적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장애인 정의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제시한 장애인 정의를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고 그 외 장애인 고용과 관련하여서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과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서 제시하는 정의를 인용하기도 한다(조경진, 2015).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라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 기관의 장애 등을 말하고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장애인복지법 제2조).’라고 했으며 지체 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간장애인, 안면장애인, 장루·요루장애인, 뇌전증장애인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장애인복지법 제2조 2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조에서는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고 했고, 장애인고용법 제2조에서는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했으며 산재보험법 제5조에서는 ‘장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고 했다. 이같이 장애 범주 또는 장애 유형은 각국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법적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장애인이 법률에 어느 정도로 포함되는지는 해당 국가에서의 장애 개념을 형성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임종호·이영미·이은미, 2017).

[표 2-4] 장애 및 장애인 개념 정리

연구자	내 용
Bernell(2003) Grönvik(2009)	•장애를 주관적, 기능적, 행정적, 사회적, 관계적 정의의 다섯 그룹으로 분류 •장애를 사회적 정의에서는 손상을 입은 사람들에 대한 억압과 장벽이라고 정의
국제장애인분류체계 (ICIDH-1, 1980)	장애의 관점을 의학적으로 바라봄
국제장애인분류체계 (ICIDH-2, 1993)	기능적·구조적 손상, 신체 기능적·구조적인 손상 결과로 야기되는 사회적 불이익에 이르기까지로 정의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 (2001)	‘질병의 결과’ 상태 구분보다는 ‘건강의 구성요소’ 상태 구분으로 신체 기능 손상과 활동 제한, 참여 제약 등 다양한 형태의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
UN 장애인권리협약 (2006)	•장애는 점진적 변화 개념이며 •손상을 지닌 사람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고 완전하게 그리고 효과적인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태도 •환경적인 장벽 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기인
장애인복지법(제2조)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2조)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장애인고용법(제2조)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산재보험법(제2조)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본 연구자 정리]

2) 삶의 만족도 개념

삶의 만족도에 대한 학술적인 논의는 1961년 Neugarten·Havighurst·Tobin이 노인 삶의 생활만족지표를 개발하면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일상 활동을 통해 만족감을 얻고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와 책임을 갖는 것 그리고 환경에 적응하면서 정서적, 사회적으로 문제 없이 개인의 필요를 충족하는 상태를 말한다고 정의하였다(박자경, 2009). 삶의 만족은 여러 다양한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연구자마다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하여

정확한 정의나 표준이 없어서 각 학문 영역에서는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한 평가 방식이 적용되고 삶의 만족도란 용어 대신 삶의 질, 안녕, 복지, 생활만족, 행복감 등과 같이 유사한 다양한 개념이 사용되기도 한다(권재숙, 2012).

행복과 삶의 만족은 다음과 같이 비교해 볼 수 있다. 행복은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현재 지향적이며 걱정, 스트레스, 불안에 영향을 많이 받지만, 삶의 만족은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합하고 걱정, 스트레스, 불안 수준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아서 불행해도 삶의 만족도가 높을 수 있고 행복해도 삶의 만족도가 낮을 수 있다(Baumeister, 2013).

삶의 만족도는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에 의해 결정되는 삶의 질이라는 상위 개념으로, 주관적인 안녕과 개인적인 만족감을 평가하는 영역이고 이는 개인의 주관적인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이고 유용한 도구로 널리 활용되며(이중섭, 2010),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한 주관적인 행복감과 만족감이며 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정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지 않고 환경과 삶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적응하고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이며 심리적, 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송미영, 2011).

삶의 질은 관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과 사회적 조건들을 통해 정의될 수 있으며 이는 주로 경제적 수준, 인구 통계적 특징, 건강, 교육, 노동 조건, 문화적 활동, 안전, 공평성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표에 의해 판단되며 이러한 객관적인 지표들은 정부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는 생활환경과 연관되어 국가의 삶의 질 측정 및 정책 평가에 사용된다(이영균·김동규, 2007). 선행연구에서 삶의 만족도는 삶의 전반적인 상황과 경험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와 만족을 포함하는 중심 개념이 되었다. 연구자들은 삶의 만족도가 개인적 지각 척도이며 개인이 일상적으로 삶의 다양한 영역에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한 주관적인 척도(Campbell, 1981)라고 했다. 이처럼 삶의 만족도에 대한 학자마다 다른 경향이 보이지만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만족도다(Gilman·Easterbrooks·Frey, 2004). 삶의 만족도는 자신의 주관적인 인식에 따라 결정되는데 인간이 같은 상황 속에 있다고 해도 다른 결과를 보이므로 삶의 만족도를 지표로 측정하는 것은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결과를 평가하는 데 유용한 방법이다(Brown, Brown, Edwards, Bertelli, & Schalock, 2022).

우리나라는 1970년 초부터 학문적으로 삶의 만족도를 주관적 또는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지표(QOL : Quality of Life)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임희섭(1996)은 자아실현, 가계생활, 가족생활, 직업생활, 여가생활, 지역사회영역 등 주관적 지표, 개인적 특성요인, 환경요인 등 객관적 지표를 제시했다.

삶의 만족도 지표는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로 나누기도 하는데 주관적 지표는 심리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만족감, 안녕감, 행복감 등이 있고 객관적 지표로는 물질적 차원에 초점을 맞춘 경제적, 사회적인 요인이 있다(김용택·윤창영·정창호, 2004).

[표 2-5] 삶의 만족도 선행논문

연구자	내 용
Neugarten(1961)	삶의 만족도는 일상생활에서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자신의 삶에 대해 가치와 의미를 느끼며, 외부 환경에 적응하고 정서적, 사회적으로 안정감을 느껴서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지 않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태
권재숙(2012)	삶의 만족도라는 용어 대신 삶의 질, 안녕, 복지, 생활만족, 행복감 등 사용
Baumeister(2013)	행복은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현재 지향적이며 걱정, 스트레스, 불안에 영향을 많이 받지만, 삶의 만족은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합하고 걱정, 스트레스, 불안 수준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음
이중섭(2010)	삶의 만족도는 상위 개념인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개인의 주관적 삶의 질을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이고 유용한 도구로 활용됨
이영균(2007)	삶의 질은 개인의 건강, 교육, 경제적 상황 등 객관적 사실과 사회적 조건을 통해 정의되며 사회경제적 지표에 의해 주로 측정된다. 이 지표들은 경제적 생활 수준, 인구학적 특성, 건강과 교육 수준, 노동 참여도, 문화적 활동, 사회적 안정과 형평성을 포함한다.
송미영(2011)	삶의 만족은 정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지 않고 환경과 삶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적응하고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이며 심리적, 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받음
Campbell(1981)	삶의 '만족도는 개인적 지각의 척도이며 개인이 일상적으로 삶의 다양한 중요한 영역에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한 주관적인 척도임
Brown(2022)	삶의 만족도를 지표로 측정하는 것은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결과를 평가하는 데 유용한 방법임
임희섭(1996)	삶의 만족도 지표로 자아실현, 가계생활, 가족생활, 직업생활, 여가생활, 지역사회영역 등의 주관적 지표, 개인적 특성요인, 환경요인 등의 객관적 지표를 제시
김용택 외(2004)	삶의 만족도 지표는 만족감, 안녕감, 행복감 등 심리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주관적 지표와 경제적, 사회적인 요인 등 물질적 차원에 초점을 맞춘 객관적 지표가 있음

[본 연구자 정리]

제 3 절 디지털정보격차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진보는 우리에게 지리적, 시간적 제약을 초월한 소통의 새로운 경로를 열어주었으나 모든 사회 구성원이 인터넷을 통해 자유롭게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차이는 사회경제적 요인, 기술 혁신의 복잡성, 개인의 심리적 요인, 미디어 환경의 사회구조적 측면, 그리고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독특한 특성과 같은 다양한 변수에 의해 발생한다. 이러한 요인들은 뉴미디어의 채택과 활용에 있어서 균등하지 않은 패턴을 만들어 내고, 정보 접근과 소통에 있어서 분명한 격차를 초래한다(박광순, 2004).

뉴미디어 채택 시기의 개인별 차이는 결국 사회 내에서 정보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고 이는 특정 집단 사이에 정보 접근성에 대한 격차를 만들어 낸다. 정보격차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는 이유는, 사회경제적 입장에서 보았을 때, 상위 계층이 하위 계층에 비하여 정보를 훨씬 더 신속하게 이용함으로써, 시간이 흐를수록 계층간 간극이 점점 더 확대되고 결국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된다(Tichenor·Donohue·Olien, 1970).

정보 불평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개념인 디지털정보격차는 인터넷 발달로 생겨난 사회적 문제로서 계층이나 집단 사이에서 나타나는 정보 접근 및 이용 가능성 불균형을 의미한다(서형준·명승환, 2016).

정보격차는 학자들 사이에서 널리 논의된 개념으로, 원래는 정보와 디지털기기에 대한 '접근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논의에서 시작되었다. 1995년, 뉴욕타임스의 저널리스트 Gray Andrew Pole에 의해 '정보를 소유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격차'로 처음 언급되었다. 같은 해, 미국 NTIA에서는 이를 '신기술에 접근 가능한 이들과 불가능한 이들 사이의 차이'로 정의했고 이 개념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OECD는 2001년, 정보격차를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개인, 가정, 기업, 지역 간의 정보통신기술 접근성 및 인터넷 사용의 차이'로 더욱 구체화하여 정의하였다(이채식·문영임·김지혜, 2022).

정보격차라는 용어는 전 세계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며 각각의 분야에 맞게 다양하고 복합적인 개념으로 발전해 왔다. 초기에는 디지털기기를 소유하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의 격차에 초점이 맞춰졌고 디지털기기의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정보격차는 단순히 물리적 접근에서 넘어서 디지털 기술의 활용 능력, 정보 이용,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 간의 차이를 내포하는 개념으로 발전하였다(이흥재·박미경, 2020).

Molnár(2002)은 정보기술 사용 여부에 따른 차이를 강조하는 '1차 정보격차'와 정보기술을 사용하는 사용자들 사이의 품질 차이를 지칭하는 '2차 정보격차'로 정보격차를 구분했고 Wei(외 2011)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의 활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득의 차이를 '3차 정보격차'로 명명하며 정보격차의 다층 계층 구조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숙정·육은희(2014)는 1차적 수준 디지털 격차를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접근 또는 소유의 차이로, 2차적 수준 디지털 격차를 디지털 미디어의 활용 능력 또는 수준의 차이로, 3차적 수준 디지털 격차를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과의 차이로 계층화하였는데, 3차적 수준의 디지털 격차는 인터넷 활용 능력이 정보적 자원 획득에 미치는 효과를 의미한다고 했다.

2022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에서는 PC Mobile 기기 보유 및 인터넷 가능 여부에 의한 디지털정보화 접근 수준, PC Mobile 기본 이용 능력에 의한 디지털정보화 역량 수준, PC Mobile 기기 인터넷 양적·질적 활용 정도에 의한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으로 구분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인 디지털정보화 활용은 유선 및 모바일 인터넷으로 정보 검색, 전자우편, 교육, 메신저, 콘텐츠 이용, 블로그, 커뮤니티, 교통정보, 제품구매 및 예약, 금융 및 행정 서비스, 클라우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더 나아가 정보생산 및 공유활동과 네트워크 활동 및 사회참여 활동 그리고 경제 활동 등이라고 했다.

[표 2-6] 디지털정보격차 선행논문

연구자	내 용
박광순(2004)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수단은 다양한 변수에 의해 발생하며 이런 요인들은 뉴미디어의 채택과 활용에서 균등하지 않은 패턴을 만들고, 정보 접근과 소통에서 분명한 격차를 초래함
Tichenor(1970)	뉴미디어 채택 시기의 개인별 차이는 사회 내 정보의 불균형을 초래하며 이는 특정 집단 간 정보 접근성의 격차를 만들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함
서형준 외(2016)	디지털정보격차는 인터넷의 발전으로 생긴 사회적 문제로, 계층이나 집단 사이에서 정보 접근과 이용 가능성의 불균형을 나타내는 정보 불평등의 대표적인 개념임
NTIA	디지털정보격차는 신기술에 접근 가능한 이들과 불가능한 이들 사이의 차이
이홍재 외(2020)	정보격차는 단순히 물리적 접근을 넘어서 디지털 기술의 활용 능력, 정보 이용,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 간의 차이를 내포하는 개념
Molnár(2002)	•1차 정보격차:정보기술 사용 여부에 따른 차이를 강조 •2차 정보격차:정보기술을 사용하는 사용자들 사이의 품질 차이를 지칭
Wei(2011)	디지털기기 및 정보의 활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득의 차이를 '3차 정보격차'로 명명
이숙정(2014)	디지털정보격차 계층화 •1차적: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접근 또는 소유의 차이 •2차적:디지털 미디어의 활용 능력 또는 수준의 차이 •3차적: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함으로써 얻는 효과의 차이

[본 연구자 정리]

제 4 절 디지털 조력자

디지털정보 이용시 모르거나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결에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망 혹은 사회적 지지원은 중재자, 중개인, 지역 전문가, 선의의 전문가, 이용 대리자, 인터넷 대리 소비자 등으로 불리는데,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통칭하여 디지털 조력자로 명명한다(김봉섭·고정현, 2020). 사회적 지지망의 구성원으로서 디지털 조력자는 공식적 조력자인 헬프 데스크, 정보통신 전문가, 정보화 교육과정과 비공식적 조력자인 가

족, 친구, 지인 등으로 나누기도 한다(Helsper·van Deursen, 2017).

디지털 조력자는 모바일을 포함한 디지털기기 활용 능력이 부족하거나 정보 활용 방법을 잘 모르는 디지털 취약계층이 효과적으로 디지털기기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긍정의 지원자들이다(이홍재·박미경·한수영, 2022).

2022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에서는 ‘디지털 조력자’를 디지털기기 이용시 잘 모르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주는 주체라고 했다.

제 5 절 선행연구 고찰

1) 장애인 삶의 만족도

장애인 삶의 만족도는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다면적인 문제이다. 장애인은 다양한 측면에서 격차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그들의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김연수, 1995). 문준호·송명근·이원석(2022)은 장애인들은 일상적인 생활에서 다소 불편을 겪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삶의 만족도 부분에서 일반인들과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오혜경·백은영(2003)은 삶의 만족도를 구성하는 요소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에게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장애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삶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고 했다. 장애인 삶의 만족도에 대한 선행논문들은 공통적으로 장애인들이 낮은 삶의 만족도를 경험한다고 밝히고 있다(백세현, 2019).

김한성·Ali·남현주 등은 경제적 안정성 측면에서 장애인 삶의 만족도를 바라봤다. 김한성·이유신(2014)은 장애인 경제적 상황은 여가 활동뿐만 아니라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취업 여부는 삶의 만족도에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장애인들의 여가 활동도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남현주·이현지(2017) 연구에서도 장애인 체육 관련 활동과 여행관련 활동, 사회참여 활동 등 여가

활동 참여와 이에 대한 만족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Ali·Schur·Blanck(2011)는 취업은 장애인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 요소이고 정신장애인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며 장애인들 삶의 만족도를 향상하는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했다.

이지수·서은철·이계승·문필동·Brunes 등은 사회참여 입장에서 장애인 삶의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문필동·이정화(2017)는 고령 장애인들의 만족도가 사회참여를 통하여 향상된다고 했고 이계승(2014)은 장애인들의 사회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음을 검증하였다.

Brunes·Hansen·Heir(2019)는 장애인들이 외로움과 고립감으로 삶의 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어서 사회참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지수(2007)는 자존감과 사회적 지지의 강화는 장애인 삶의 만족을 높이는 요인들임을 확인하였는데, 장애인들이 자신과 외부 환경을 인식할 때 객관적인 조건뿐 아니라 내적인 성격 특성과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는 결과라고 했다. 서은철(2014)도 지각된 사회경제적 지위가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음을 밝혔다. 이처럼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사회참여 및 사회적 지지가 장애인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중섭(2009)의 연구에서는 빈곤 장애인의 생활만족도 정도는 가족관계 만족, 교제하고 있는 친구 수 만족, 여가생활 만족,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 건강에 대한 만족 그리고 수입 만족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Parletta·Aljeesh·Baune(2016)은 장애인들이 좋은 음식을 섭취하면 육체와 정신에 유익한 영향을 주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했고, Ghimire·Baral·Karmacharya·Callahan·Mishra(2018)도 양질의 영양소 섭취는 장애인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요인이라고 했다.

[표 2-7] 장애인 삶의 만족도 선행논문

연구자	내 용
김연수(1995)	장애인은 다양한 측면에서 격차를 경험하고 있으며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
오혜경 외(2003)	삶의 만족도를 구성하는 요소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에게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장애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삶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문준호 외(2022)	장애인들은 일상적인 생활에서 다소 불편을 겪고 있는 특성이 있어 삶의 만족도 부분에서 일반인들과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음
백세현 외(2019)	장애인 삶의 만족도에 대한 선행논문들은 공통적으로 장애인들이 낮은 삶의 만족도를 경험한다고 함
김한성 외(2014)	장애인 취업 여부는 삶의 만족도에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장애인들의 여가 활동도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남현주 외(2017)	장애인 체육 관련 활동과 여행 관련 활동, 사회참여 활동 등 여가 활동 참여와 이에 대한 만족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침
Ali 외(2011)	취업은 정신장애인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며, 장애인들 삶의 만족도를 향상하는 핵심적인 요인임
문필동 외(2017)	고령 장애인들의 만족도가 사회참여를 통하여 향상됨
이계승(2014)	장애인들의 사회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음
Brunes 외(2019)	장애인들이 외로움과 고립감으로 삶의 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사회참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함
이지수(2007)	자존감과 사회적 지지의 강화는 장애인 삶의 만족을 높이는 요인임
서은철(2014)	지각된 사회경제적 지위가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음
이중섭(2009)	빈곤 장애인 생활만족도 정도는 가족관계 만족, 교제하고 있는 친구 수 만족, 여가생활 만족,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 건강에 대한 만족 그리고 수입 만족임
Parletta(2016)	장애인들이 좋은 음식을 섭취하면 육체와 정신에 유익한 영향을 주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음
Ghimire(2018)	양질의 영양소 섭취는 장애인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요인임

[본 연구자 정리]

2) 장애인 디지털정보화 활용과 삶의 만족도

장애인 경우 신체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디지털기기를 보유하지 않거나 통신비 부담으로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가구가 있어 비장애인에 비해 디지털정보에 대한 접근 및 활용에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따르면 2022년 비장애인 가구 대비 장애인 가구의 디지털정보 활용 수준은 82.0%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장애인의 디지털정보 활용 능력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했다. 장애인의 정보 활용 능력은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며 장애인의 정보 활용 여부는 장애인의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인터넷을 활용하는 장애인 삶의 만족도는 장애인의 교육 수준, 사는 지역, 장애 정도에 영향을 받는다(황주희, 2019). 장애인에게 디지털정보 활용은 사회통합과 소외의 양면성을 지닌다.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 활용이 원활하다면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사회에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다. 반면, 인터넷 등 디지털정보 활용이 원활하지 않으면 장애인은 사람들과 관계, 직장생활 등 사회로부터 더욱 소외되고 배제될 수 있다(Vicente·Lopez, 2010).

이근희(2023)의 연구에서는 검색, 이메일 및 콘텐츠 서비스의 활용은 정신장애인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는 정신장애인 삶의 만족도에 디지털정보화 수준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보여준다.

백세현·이성규(2021)의 연구에서는 지체장애인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사회적 자본 및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자본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유경(2023)은 청각장애인의 디지털 리터러시와 사회적지지 및 삶의 만족도 수준을 살펴본 결과 디지털 리터러시는 청각장애인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창호(2022)의 연구에서는 디지털정보화 수준이 지체장애인 삶의 만

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는데 모바일기기 활용 수준이 장애인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희·허진무·김매이(2022)는 장애 노인 삶의 만족에 대한 개인 수준과 지역 수준 요인 검증을 위해 다층모형 분석을 시행하였는데 중·고령층 장애인 인터넷 사용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이 높아짐을 검증하였다.

김대영(2022)의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PC·Mobile 기기 이용 능력 및 사회적 관계 서비스 이용 비율이 연령과 성별 및 가구 구성 등 인구사회학적인 특성과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와 같은 장애 관련 특성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더 나아가 이러한 요인들이 장애인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사회적 제약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황주희(2019)의 연구에서는 장애인 디지털정보 활용 여부는 장애인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정보를 활용하고 있는 장애인 삶의 만족도가 그렇지 않은 장애인보다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표 2-8] 장애인 디지털정보화 활용과 삶의 만족도 선행논문

연구자	내 용
이근희(2023)	정신장애인 삶의 만족도에 디지털정보화 수준이 영향을 미치지 않음
백세현(2021)	지체장애인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사회적 자본 및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사회적 자본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
서유경(2023)	청각장애인의 디지털 리터러시는 청각장애인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음을 확인
한창호(2022)	정보화 수준이 지체장애인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이상희(2022)	중·고령층 장애인 인터넷 사용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이 높아짐을 검증
김대영(2022)	장애인 PC·Mobile 기기 이용 능력과 사회적 관계 서비스 이용률은 장애인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임
황주희(2019)	장애인 디지털정보 활용 여부는 장애인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

[본 연구자 정리]

3) 장애인 디지털 조력자와 삶의 만족도

디지털 조력은 모바일 사회참여와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고령 지체장애인은 디지털기기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조력자 도움이 필요하고 청장년과 비교하여 디지털 조력자가 모바일 정보 활용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노승현·김정식·곽정란, 2022).

장·노년층의 장애인 디지털 리터러시 연구에서 디지털 역량은 모든 디지털 활용에, 디지털 조력자는 부분적으로 디지털 활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혜민, 2020).

신체장애인 정보화 활용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디지털 조력의 수준과 개인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디지털기기와 기술에 대한 태도와 동기 개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디지털 조력의 수준만 높이는 것으로는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이 높아지지 않으며 정보역량의 수준이 높아야만 디지털 조력이 신체장애인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했다(임정우, 2022). 권종실(2023)의 연구에서도 장애인 디지털정보 서비스 활용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디지털 조력자 역할에 해당하는 사회적 자본과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디지털 조력자 도움은 장애인들이 디지털기기 조작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 개인의 기술적 역량에 더하여 온라인 서비스 이용의 필요성 인식과 유용성 등과 같은 요인들의 영향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장창기·성옥준, 2020).

디지털 조력을 비공식 조력, 공식 조력, 그리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로 구분하고 장애인 기술 접근성과 기술 수용 태도 및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 사이 경로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에서는 기술 수용 태도와 정보화 활용 수준 간에 디지털 조력자가 조절된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김지혜, 2021).

디지털 조력자 역할을 하는 사회적 지지 수준이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

준 및 삶의 만족도 간에 부정적 작용을 하여 오히려 삶의 만족도를 약화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장애인은 디지털 조력자 역할을 행하는 사회적 지지 수준이 증가할수록 장애인 스스로 디지털정보를 활용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조력자에게 수동적으로 의존하려는 가능성이 높아서 디지털 조력자인 사회 지지체계가 장애인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디지털정보화 활용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도 했다(문영임·이성규·김지혜, 2021),

[표 2-9] 장애인 디지털 조력자와 삶의 만족도 선행논문

연구자	내 용
노승현(2022)	고령 지체장애인은 디지털기기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조력자 도움이 필요하고 청장년보다 디지털 조력자가 Mobile 정보 활용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큼
이혜민(2020)	장·노년층 장애인 디지털 조력자는 부분적으로 디지털 활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임정우(2022)	정보역량의 수준이 높아야만 디지털 조력이 신체장애인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을 향상할 수 있음
권종실(2023)	장애인 디지털정보화 서비스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디지털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적 자본 및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필요
김지혜(2021)	디지털 기술 수용 태도 및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 간에 디지털 조력자가 조절된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
문영임 외(2021)	장애인은 디지털 조력자 지지 수준이 높아질수록 조력자에게 의존하여 정보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서 디지털정보화 활용을 방해하는 요소로 적용될 수 있음

[본 연구자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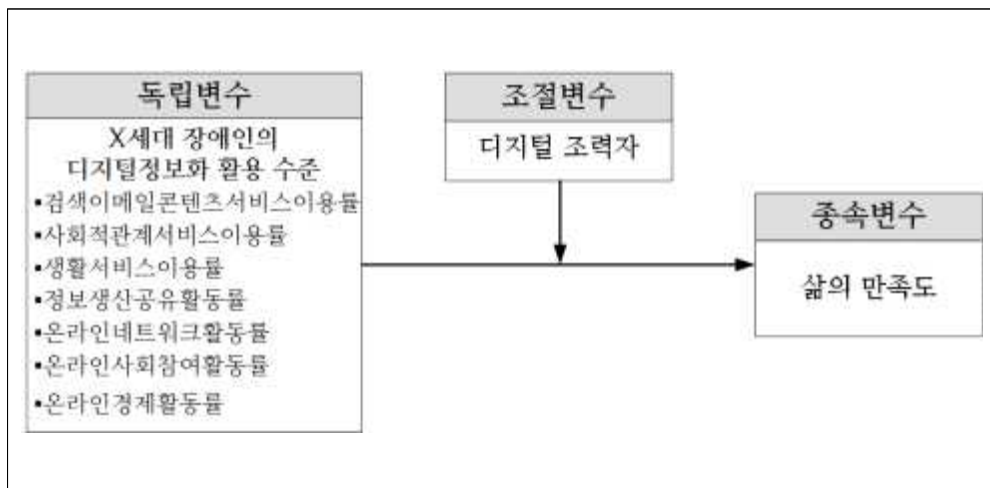
제 3 장 연구 방법

제 1 절 연구모형 및 가설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X세대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과 디지털 조력자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선행연구에서는 디지털정보화 활용이 장애인 사회참여, 정보 접근, 경제활동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확인하였고 이 과정에서 디지털 조력자 역할이 장애인 삶의 만족도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림 3-1]과 같은 연구모형을 제시하여 디지털 조력자 조절효과를 통해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이 X세대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독립변수에 X세대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을, 종속변수에 삶의 만족도를, 조절변수에 디지털 조력자를 설정하였다.

[그림 3-1] 연구모형



2) 연구가설

선행논문에 의하면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정신장애인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이근희, 2023), 지체장애인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사회적 자본 및 삶의 만족도에 정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백세현, 2021), 청각장애인 디지털 리터러시와 삶의 만족 수준을 살펴본 결과 리터러시는 청각장애인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서유경, 2023).

한창호(2022) 연구에서는 디지털정보화 수준이 지체장애인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때 모바일기기 활용 수준이 장애인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상희(2022)는 중·고령층 장애인 인터넷 사용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이 높아짐을 검증하였고 김대영(2022)은 장애인 PC·Mobile 기기 활용 능력과 사회적 관계 서비스 이용 정도는 장애인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서유경(2023)의 논문에서는 청각장애인의 디지털 리터러시는 청각장애인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황주희(2019)의 논문에서도 장애인의 정보 활용 여부는 이들의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터넷을 사용·활용하는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는 그렇지 않은 장애인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선행연구에서는 장애인 디지털정보 활용 여부는 이들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X세대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의 구체적인 활용 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기 위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표 3-1]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과 삶의 만족도 연구가설

항목	가 설
1-1	X세대 장애인의 검색 및 이메일, 콘텐츠 서비스 이용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X세대 장애인의 사회적 관계 서비스 이용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3	X세대 장애인의 생활 서비스 이용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4	X세대 장애인의 정보생산 공유 활동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5	X세대 장애인의 온라인 네트워킹 활동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6	X세대 장애인의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7	X세대 장애인의 온라인 경제 활동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고령 지체장애인은 디지털기기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조력자 도움이 필요하고 청장년보다 디지털 조력자가 모바일 정보 활용에 미치는 효과가 크고(노승현, 2022), 장·노년층 장애인 디지털 조력자는 부분적으로 디지털 활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이는 다시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다(이혜민, 2020).

권종실(2023)의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디지털정보 서비스 활용의 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디지털 조력자 역할을 하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사회적 자본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확인하였고 김지혜(2021)는 디지털 기술을 받아들이는 태도와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 간에서 디지털 조력자의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문영임(외, 2021)의 연구에서는 장애인은 디지털 조력자 지지 수준이 높아질수록 조력자에게 의존하여 수동적으로 정보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져 디지털정보화 활용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고 기존 연구와 다른 결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X세대 장애인의 디지털정보 활용 수준과 디지털 조력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3-2]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 디지털 조력자, 삶의 만족도 가설

항목	가 설
2-1	X세대 장애인의 검색 및 이메일, 콘텐츠 서비스 이용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디지털 조력자 영향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2-2	X세대 장애인의 사회적 관계 서비스 이용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디지털 조력자 영향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2-3	X세대 장애인의 생활 서비스 이용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디지털 조력자 영향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2-4	X세대 장애인의 정보생산 공유 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디지털 조력자 영향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2-5	X세대 장애인의 온라인 네트워킹 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디지털 조력자 영향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2-6	X세대 장애인의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디지털 조력자 영향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2-7	X세대 장애인의 온라인 경제 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디지털 조력자 영향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제 2 절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가 지능정보화기본법 제67조(연차보고 등) 및 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54조(실태조사) 등에 의거 추진된 ‘2022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서 제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되었다. 이 조사는 2022년 8월 1일 기준으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전국 7세(만)에서~ 69세(만) 장애인(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언어장애, 시각 장애 유형 기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성·연령·장애 유형·지역별 비례할당표집 방식을 통해 2,200명의 표본을 추출하였다. 조사는 2022년 8월 1일부터 2022년 9월 12일까지 구조화된 설문과 대면 면접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결측값을 제외한 2,200명의 장애인 중 44세~59세(1979~1964년생) 844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2022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 중 85.5%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을 접속하고 28.6%가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접속하며 5.0%는 스마트패드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었다([표 3-3]).

[표 3-3] 인터넷 이용기기 비율 (2022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구분		스마트폰(%)	PC(%)	스마트패드(%)
일반국민		93.9	59.8	20.4
취약계층	장애인	85.5	28.6	5.0
	고령층	83.6	22.3	4.0
	저소득층	90.4	42.2	11.3
	농어민	84.1	31.4	6.3
	평균	84.9	27.0	5.4

제 3 절 측정용 도구

1) 독립변수 :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3)의 ‘2022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서는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디지털정보화 접근과 디지털정보화 역량 및 디지털정보화 활용의 3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디지털정보화 접근 수준은 PC·Mobile 기기 보유 및 인터넷 접근성을 평가하는 지표이고 디지털정보화 역량 수준은 PC·Mobile 기기 기본 이용능력을 측정하는 지표이며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은 PC·Mobile 기기 인터넷 양적 및 질적 활용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은 ‘인터넷 서비스 이용 다양성’과 ‘인터넷 심화 활용 정도’로 구분된다. 인터넷 서비스 이용 다양성에는 디지털기기를 통해 기본적인고 보편적 인터넷 서비스들을 다양하게 이용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지수로 검색 및 이메일 이용률 및 콘텐츠 서비스 이용률 그리고 사회적 관계 서비스 이용률과 생활서비스 이용률이 있다. 인터넷 심화 활용 정도에는 정보생산 공유 활동률 및 온라인 네트워크 활동률과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률 그리고 온라인 경제 활동률이 있다.

문항은 7개 구성요소 총 48문항이며 참여자들은 리커트 4점 척도를 사용하여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을 기록하였다. 이 척도는 1점에서 4점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높은 점수일수록 디지털정보 활용 관련성이 높다고 해석한다.

본 연구의 설정 가설에 따른 독립변수 설문 내용은 [표 3-4]와 같다.

[표 3-4] 독립변수 :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 문항

구성요소	문항		설문 내용
	PC	모바일	
검색 및 이메일, 콘텐츠 서비스 이용률	1-1	1-5	정보 및 뉴스 검색
	1-2	1-5	이메일
	1-3	1-7	미디어콘텐츠(영화이용/음악이용/전자책이용 등)
	1-4	1-8	교육콘텐츠(각종 강좌 및 강의수강 등)
사회관계 및 정보공유 서비스 이용률	2-1	2-6	SNS
	2-2	2-7	메신저
	2-3	2-8	개인 블로그
	2-4	2-9	커뮤니티
	2-5	2-10	클라우드 서비스
생활서비스 이용률	3-1	3-5	생활정보서비스
	3-2	3-6	전자상거래서비스
	3-3	3-7	금융거래서비스
	3-4	3-8	공공서비스
정보생산·공유 활동률	4-1	4-3	직접 만들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수정하고 편집한 콘텐츠
	4-2	4-4	인터넷에서 본 콘텐츠를 올리거나 또는 링크를 공유한 적이 있다
온라인 네트워크 활동률	5-1	5-3	나는 기존 알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더 친밀해지기 위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적이 있다
	5-2	5-4	나는 새로운 사람들을 알고 소통키 위해 인터넷을 사용한 적이 있다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률	6-1	6-5	나는 인터넷으로 사회 관심사(공공이슈)에 대한 의견 표명한 적이 있다
	6-2	6-6	나는 인터넷으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 정책제안이나 건의, 정책평가, 민원제기 등을 한 적이 있다
	6-3	6-7	나는 인터넷으로 기부 또는 봉사 활동을 한 적이 있다
	6-4	6-8	나는 인터넷으로 온라인 투표 또는 여론조사 및 서명 등에 참여한 적이 있다
온라인 경제 활동률	7-1	7-5	나는 인터넷으로 취업 또는 이직에 도움 되는 활동을 한 적이 있다
	7-2	7-6	나는 인터넷으로 창업이나 또는 사업에 도움이 되는 마케팅 활동을 한 적이 있다
	7-3	7-7	나는 인터넷으로 소득증대에 도움 되는 관련 정보검색/습득 및 재테크 활동을 한 적이 있다
	7-4	7-8	나는 인터넷으로 비용절감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한 적이 있다

2) 종속변수 : 삶의 만족도

본 연구는 장애인 삶의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2022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서 수집한 삶의 만족도 관련 문항을 활용하였다. 이 문항은 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여자들은 리커트 4점 척도를 사용하여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을 기록하였다. 이 척도는 1점에서 4점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높은 점수일수록 개인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의 설정 가설에 따른 종속변수 설문 내용은 [표 3-5]와 같다.

[표 3-5] 종속변수 : 삶의 만족도 문항

구성요소	문항	설문 내용
자신의 삶에 만족 정도	1-1	대부분의 경우 내 삶은 내 이상과 가깝다
	1-2	내 삶의 조건들은 매우 우수하다
	1-3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1-4	지금까지 나는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얻었다.
	1-5	내 삶을 다시 산다면, 나는 거의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

3) 조절변수 : 디지털 조력자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디지털 조력자의 조절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2022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서 수집한 디지털 조력자 관련 문항을 활용하였다. 이 문항은 6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여자들은 리커트 4점 척도를 사용하여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을 기록하였다. 이 척도는 1점에서 4점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높은 점수일수록 디지털 조력자 연관성이 높다고 해석한다. 본 연구의 설정 가설에 따른 조절변수 설문 내용은 [표 3-6]과 같다.

[표 3-6] 조절변수 : 디지털 조력자 문항

구성요소	문항	설문 내용
디지털 조력자 (디지털기기 이용시 잘 모르거나 문제가 생기면 해결 방안)	1-1	내 스스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문제를 해결한다
	1-2	인터넷 정보검색으로 도움을 받는다
	1-3	가족에게 도움을 받는다
	1-4	친구에게 도움을 받는다
	1-5	직장 동료나 지인에게 도움을 받는다.
	1-6	서비스센터 등 전문 인력에게 도움을 받는다

제 4 절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데이터 확인, 입력 및 부호화 과정을 거친 후 통계 소프트웨어인 SPSS 22.0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 및 삶의 만족도, 디지털 조력자 등의 기본 통계량과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평균, 표준 편차, 빈도 분석 등의 기술통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둘째, 측정도구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알파 계수를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연구 대상의 주요 변수들 사이를 상관관계분석하여 회귀분석을 위한 선행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독립변수인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과 조절변수인 디지털 조력자가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디지털 조력자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Baron과 Kenny의 위계적회귀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 이 영향을 '디지털 조력자'가 조절하는지를 평가하였다.

구체적으로, 분석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수행되었다.

첫째,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에 의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이 '삶의 만족도'를 얼마나 설명하는지를 평가하였다.

둘째,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과 '삶의 만족도' 사이의 상호작용 항을 추가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디지털 조력자'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과 '삶의 만족도' 사이의 관계가 조절되는지를 검증하였다.

셋째, 분석에서 다중공선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변수들의 값을 평균 중심화하여 사용하였다. 이는 변수 간 상관성을 줄이고 분석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

넷째, 조절효과가 확인된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 삶의 만족도 평균을 계산하고 이를 기반으로 삶의 만족도가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으로 나누어 단순 기울기 검정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디지털 조력자'의 조절효과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확인하였다.

제 4 장 연구 결과

제 1 절 연구 대상의 일반 특성

1) 연구 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 원자료로 사용한 ‘2022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장애인은 2022년 8월 1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전국 7~69세(만) 장애인(지체, 뇌병변, 청각/언어, 시각장애유형 기준) 중에 성, 연령, 장애유형, 광역지자체별 비례할당표집에 의해 2,200명을 표본 추출하였고 이들을 구조화된 설문에 의해 대인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 세대 구분을 기준으로 시니어세대를 1954년 이전 생, 베이비붐세대를 1955년~1963년생, X세대를 1964년~1979년생, M세대를 1980년~1994년생, Z세대를 1995년~2005년생으로 구분하였다. 세대별 구성 분석 결과 X세대 장애인이 38.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베이비붐세대, 시니어세대, M세대, Z세대 순의 비율이었다. 조사 장애인의 세대별 구성은 [표 4-1]과 같다.

[표 4-1] 2022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장애인 세대별 구성

세대 구분	출생 연도	연령	빈도	비율(%)
시니어세대	1954년 이전	68세 이상	217	9.9
베이비붐세대	1955 ~ 1963	59 ~ 67	593	27.0
X세대	1964 ~ 1979	43 ~ 58	844	38.4
M세대	1980 ~ 1994	28 ~ 42	389	17.7
Z세대	1995 ~ 2005	17 ~ 27	154	7.0
그 외	2006년 이후	16세 이하	3	0.1
합계			2,200	100.0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설문 대상자인 전체 장애인 중에서 X세대 장애인

844명을 연구 대상으로 성별, 장애발생시기, 장애정도, 장애유형 학력, 가구 구성, 월평균 소득, 가구내 인터넷 가능, 스마트폰 보유자, 피쳐폰 보유자, 휴대전화 미보유자, 스마트패드 보유자, 스마트 주변기기 보유자 비율 등으로 구분하여 [표 4-2]에 제시하였다.

[표 4-2] 연구대상자(X세대 장애인)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		N (X세대 장애인)	빈도	비율(%)
성별	남자	844	620	73.5
	여자		224	26.5
장애발생시기	선천적	844	289	34.2
	후천적		555	65.8
장애정도	중증	844	208	24.6
	경증		636	75.4
장애유형	지체장애	844	568	67.3
	뇌경변장애		87	10.3
	시각장애		111	13.2
	청각장애		70	8.3
	언어장애		8	0.9
학력	중졸이하	844	145	17.2
	고졸		528	62.6
	대졸이상		171	20.3
가구구성	1인가구	844	150	17.8
	다인가구		694	82.2
월평균 수입	1백만원 미만	844	108	12.8
	100~199만원		130	15.4
	200~299만원		172	20.4
	300~399만원		194	23.0
	400~499만원		119	14.1
	5백만원 이상		121	14.3

남녀 성비는 남성 장애인이 73.5%로 여성 장애인 26.5%보다 비율이 높았다. 장애발생시기는 후천적(65.8%)인 경우가 선천적(34.2%)인 경우보다 높았고 장애 정도는 경증장애(75.4%)가 중증장애(24.6%) 보다 높았으며 장애유형의 비율은 지체장애 67.3%, 시각장애 13.2%, 뇌경변장애 10.3%, 청각장애 9.3%, 언어장애 0.9% 순이었다.

학력은 고졸 62.6%, 대졸 20.3%, 중졸이하 17.2% 순으로 연구 대상의 82.9% 이상이 중등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구성은 다인가구가 82.2%, 1인가구 12.8%로 X세대 장애인은 다인가구 비율이 독신 거주 비율보다 높았다.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300~399만원 23.0%, 200~299만원 20.4%, 100~199만원 15.4%, 5백만원 이상 14.3%, 400~499만원 14.1%, 1백만원 미만 12.8% 순이었다.

2) 연구 대상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특성

연구 대상의 99.3%가 가구 내 인터넷 연결이 가능하고 모바일 디지털 정보화 활용의 기반이 되는 스마트폰 보유율은 90%로 나타났다. 또한 스마트패드 보유율은 12.7%, 스마트 주변기기 보유율은 93.2%였다([표 4-3]).

[표 4-3] 연구 대상자(X세대 장애인) 디지털정보화 활용 특성

변수	N (X세대 장애인)	빈도	비율(%)
가구내 인터넷 가능	844	838	99.3
스마트폰 보유자	844	760	90.0
피쳐폰 보유자	844	77	9.1
휴대전화 미보유자	844	9	1.1
스마트패드 보유자	844	107	12.7
스마트 주변기기 보유자	844	787	93.2
한 달 내 인터넷 이용자	844	755	89.5

한 달 이내에 인터넷을 한 번이라도 사용한 X세대 장애인은 89.5%이고 이들의 평균 인터넷 이용 일수는 평균 26.6일이었다.

[표 4-4] 한 달 내 인터넷 사용자 중 인터넷 이용 일수

한 달 내 인터넷 이용자	최소값(일)	최대값(일)	평균(일)
755	3	31	26.6

제 2 절 주요 변수의 기술적 통계

본 연구 변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X세대 장애인 전체 844명 중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인터넷을 사용한 755명에 대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고 결과를 [표 4-5]에 제시하였다.

[표 4-5] 주요변수 기술통계분석

변수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독립 변수	검색이메일콘텐츠서비스이용률	755	1.00	4.00	2.034	.617	.436	-.360
	사회관계공유서비스이용률	755	1.00	3.50	1.841	.600	.719	-.577
	생활서비스이용률	755	1.00	4.00	2.110	.662	.280	-.592
	정보생산공유활동률	755	1.00	4.00	1.799	.694	.562	-.540
	온라인네트워킹활동률	755	1.00	4.00	1.965	.641	.315	-.493
	온라인사회참여활동률	755	1.00	3.63	1.571	.620	.923	-.139
	온라인경제활동률	755	1.00	3.38	1.682	.632	.641	-.714
종속 변수	삶의 만족도	755	1.00	3.60	2.276	.561	.025	-.611
조절 변수	디지털 조력자	755	1.00	3.67	2.529	.538	-.363	-.064

West·Finch·Curran(1995)에 따르면 왜도 $\lt\pm 3$, 첨도 $\lt\pm 8$ 일 경우 표본은 정규 분포를 이루는데, 기술분석 대상의 독립변수는 왜도 .315~.923, 첨

도 $-.714 \sim -1.139$, 종속변수는 왜도 $.025$, 첨도 $-.611$, 조절변수는 왜도 $-.363$, 첨도 $-.064$, 로 West·Finch·Curran 기준을 만족하여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 3 절 측정도구 검증

1) 신뢰도 분석

디지털정보화 활용의 하위요인과 삶의 만족도, 디지털 조력자 내적 일관성 검증을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도 분석은 측정 도구 일관성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Cronbach 알파 계수를 평가했다. Cronbach 알파 계수는 0~1 사이의 값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0.7 상이면 양호한 신뢰도를 가진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정보화 활용의 하위요인 7개(50문항), 삶의 만족도 1개(5문항), 디지털 조력자 1개(6문항) 등 총 9개 요인, 61개 문항의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독립변수의 Cronbach 알파 계수값은 ‘검색 이메일 콘텐츠서비스 이용률’은 0.830, ‘사회적 관계 서비스 이용률’은 0.876, ‘생활 서비스 이용률’은 0.866, ‘정보생산 공유 활동률’은 0.810, ‘네트워킹 활동률’은 0.746, ‘사회참여 활동률’은 0.901, ‘경제 활동률’은 0.881로 디지털정보화 활용의 하위요인 7개 모두 0.7 이상의 양호한 신뢰도를 보였다.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 Cronbach 알파 계수값은 0.830이었고 조절변수인 ‘디지털 조력자’의 Cronbach 알파 계수값은 0.702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은 모두 양호한 신뢰도를 보인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이 연구 목적에 부합하여 측정 도구로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4-6] 주요변수 신뢰도분석

변수		Cronbach 알파	항목수
독립변수	검색이메일콘텐츠서비스이용률	.830	8
	사회적관계서비스이용률	.876	10
	생활서비스이용률	.866	8
	정보생산공유활동률	.810	4
	온라인네트워킹활동률	.746	4
	온라인사회참여활동률	.901	8
	온라인경제활동률	.881	8
종속변수	삶의 만족도	.830	5
조절변수	디지털 조력자	.702	6

2) 상관관계 분석

상관관계분석(Point-Biserial Correlation)을 통해 X세대 장애인의 디지털 활용 수준과 삶의 만족도 사이에서 디지털 조력자 역할을 확인하기 전,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과 연관성을 검토하였다([표 4-7]).

분석 결과에서 '검색 이메일 콘텐츠 서비스 이용률'과 '생활 서비스 이용률' 사이의 상관계수는 $r=.836$ 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온라인 경제 활동률'과 '사회적관계 서비스 이용률' 간의 상관계수가 $r=.797$ 로 나타났다. 또한 '검색 이메일 콘텐츠 서비스 이용률'과 '사회적 관계 서비스 이용률' 간의 상관계수는 $r=0.792$ 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r 값은 모두 1 이하이고 음의 부호를 가진 부적상관관계는 관찰되지 않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모든 유의확률 값은 전체적으로 $p<.001$ 이하로 나타났다.

[표 4-7] 상관관계분석

구분		1	2	3	4	5	6	7	8	9
독립 변수	검색이메일콘텐츠서비스이 용률	1								
	사회적관계서비스이용률	.792***	1							
	생활서비스이용률	.836***	.776***	1						
	정보생산공유활동률	.627***	.748***	.626***	1					
	온라인네트워킹활동률	.628***	.687***	.654***	.755***	1				
	온라인사회참여활동률	.612***	.762***	.588***	.716***	.668***	1			
	온라인경제활동률	.685***	.797***	.710***	.752***	.694***	.791***	1		
종속 변수	삶의 만족도	.262***	.229***	.204***	.219***	.186***	.268***	.243***	1	
조절 변수	디지털 조력자	.311***	.278***	.327***	.231***	.270***	.165***	.230***	.287***	1
*p<.05, **p<.01, ***p<.001										

제 4 절 가설검증

1) 회귀모형 분석

X세대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때 디지털 조력자가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1’은 X세대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PC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검색이메일 콘텐츠서비스 이용 정도’, ‘PC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사회관계공유서비스 이용 정도’, ‘PC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생활서비스 이용 정도’, ‘PC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정보생산공유 이용 정도’, ‘PC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네트워킹 이용 정도’, ‘PC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사회참여 이용 정도’, ‘PC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경제활동 이용 정도’ 일곱 개 독립변수 각각

의 표준화점수를 투입하였고 ‘모형2’에서는 디지털 조력자 표준화점수를 투입하였으며 ‘모형3’에서는 디지털 조력자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디지털 조력자와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였다. 모형1 분석으로 가설1을 검증하였고 모형2와 모형3에 의한 분석으로 가설2를 검증하였다.

[표 4-8] ANOVA 분석 결과에 의하면, 모형1과, 모형2, 모형3의 유의확률은 모두 .000으로 회귀모형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8] 위계적회귀분석 적합도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1	22.121	7	3.160	10.965	.000 ^b
2	35.374	8	4.422	16.329	.000 ^c
3	41.814	15	2.788	10.109	.000 ^d
a. 예측자: (상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 b. 예측자: (상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 디지털 조력자 c. 예측자: (상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 디지털 조력자,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 × 디지털 조력자 d. 종속변수: 삶의 만족도					

[표 4-9] 모형 요약 결과의 R제곱 값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얼마나 설명하는지 판단 근거가 되는 수치이다. X세대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때 디지털 조력자가 수정된 R^2 은 모형1에서 .085으로 모형2에서 .140으로 모형3에서 .154로 증가하였다. R^2 의 변화량은 모형1에서 모형2로 .056 증가했고 모형2에서 모형3으로 .021이 증가하였다. 그러므로 조절변수로 인한 설명력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유의확률 변화량 또한 모형1에서 .000, 모형2에서 .000, 모형3에서 .009로 조절변수 투입으로도 0.01 이하값을 유지하고 있다. Durbin-Watson 계수는 1.760으로 2에 근접한 값으로 나타나 잔차항 간 상관성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 4-9]).

[표 4-9] 위계적회귀분석 모형 설명력

모형	R	R ²	수정된 R ²	추정값의 표준오차	통계량 변화량				Durbin-Watson
					R ² 변화량	자유도1	자유도2	유의확률 F 변화량	
1	.305 ^a	.093	.085	.537	.093	7	746	.000	
2	.386 ^b	.149	.140	.520	.056	1	745	.000	
3	.413 ^c	.170	.154	.516	.021	7	738	.009	1.760

a.예측자: (상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
b.예측자: (상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 디지털 조력자
c.예측자: (상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 디지털 조력자,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디지털 조력자
d.종속변수: 삶의 만족도

2) X세대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과 삶의 만족도 관계

본 연구에서 X세대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회귀분석 모형1([표 4-10])의 결과로 일곱 개의 가설을 검정하였다.

[표 4-10] X세대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과 삶의 만족도

모형		B	S.E	β	t	p	공차	VIF
1	(상수)	2.276	.020		116.432	.000		
	Z_검색이메일콘텐츠서비스이용률	.145	.039	.258	3.693	.000	.249	4.023
	Z_사회적관계서비스 이용률	-.059	.043	-.104	-1.347	.178	.203	4.937
	Z_생활서비스 이용률	-.042	.040	-.075	-1.064	.288	.243	4.110
	Z_정보생산공유 활동률	.024	.036	.043	0.677	.498	.299	3.340
	Z_온라인 네트워킹 활동률	-.032	.033	-.057	-0.986	.324	.358	2.793
	Z_온라인 사회참여 활동률	.111	.036	.198	3.116	.002	.301	3.322
	Z_온라인 경제 활동률	.030	.040	.054	0.766	.444	.245	4.086

a. 종속변수: 삶의 만족도

해당 가설의 VIF 값은 모두 5.0 이하로 독립변수 사이에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검색 및 이메일 콘텐츠

츠 서비스 이용률($\beta = .258, p = .000$)’과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률($\beta = .198, p = .002$)’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적 관계 서비스 이용률($\beta = -.104, p = .178$)’, ‘생활 서비스 이용률($\beta = -.075, p = .288$)’, ‘정보생산 공유 활동률($\beta = .043, p = .498$)’, ‘온라인 네트워킹 활동률($\beta = -.057, p = .324$)’, ‘온라인 경제 활동률($\beta = .054, p = .444$)’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X세대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설검증 결과 가설 1-1 ‘X세대 장애인의 검색 및 이메일, 콘텐츠 서비스 이용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와 가설 1-6 ‘X세대 장애인의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3) 디지털 조력자 조절효과 분석

본 연구에서 X세대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때 디지털 조력자가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회귀분석 모형2와 모형3([표 4-11])의 결과로 일곱 개의 가설을 검정하였다. 모형3의 상호작용 검정 항을 살펴보면 가설의 VIF 값은 모두 10.0 이하로 독립변수 사이에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조력자 조절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온라인 네트워킹 활동률($\beta = .144, p = .013$)’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1]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과 삶의 만족도 - 디지털 조력자 조절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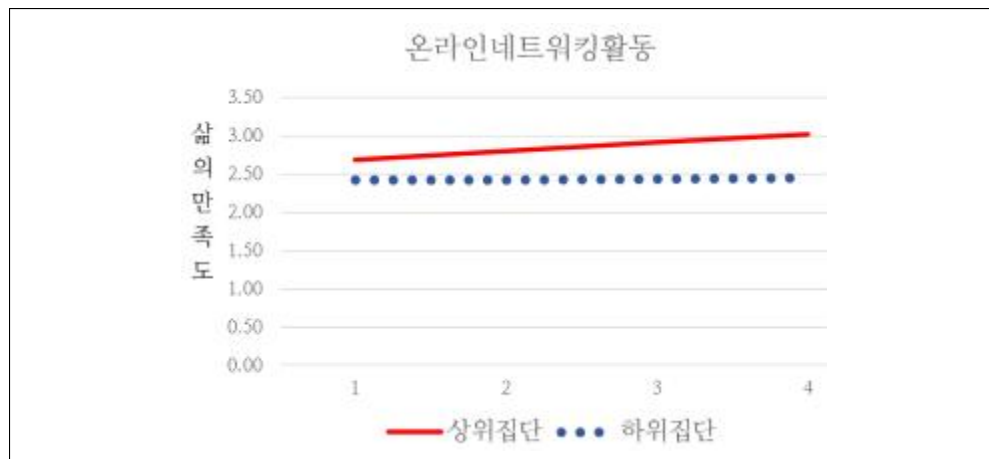
모형		B	S.E	β	t	p	공차	VIF
2	(상수)	2.276	.019		120.120	.000		
	Z_검색이메일콘텐츠서비스이용률	.129	.038	.230	3.386	.001	.248	4.037
	Z_사회적관계서비스 이용률	-.070	.042	-.125	-1.662	.097	.202	4.944
	Z_생활서비스 이용률	-.068	.039	-.121	-1.757	.079	.241	4.147
	Z_정보생산공유 활동률	.023	.035	.040	.654	.513	.299	3.340
	Z_온라인 네트워킹 활동률	-.051	.032	-.091	-1.604	.109	.356	2.813
	Z_온라인 사회참여 활동률	.133	.035	.237	3.830	.000	.299	3.349
	Z_온라인 경제 활동률	.033	.038	.059	.858	.391	.245	4.087
	Z_디지털 조력자	.142	.020	.253	6.996	.000	.875	1.143
3	(상수)	2.268	.020		113.190	.000		
	Z_검색이메일콘텐츠서비스이용률	.109	.040	.195	2.734	.006	.221	4.533
	Z_사회적관계서비스 이용률	-.044	.044	-.079	-1.008	.314	.181	5.517
	Z_생활서비스 이용률	-.053	.039	-.095	-1.371	.171	.236	4.234
	Z_정보생산공유 활동률	.035	.036	.063	.974	.330	.267	3.745
	Z_온라인 네트워킹 활동률	-.067	.032	-.119	-2.068	.039	.339	2.952
	Z_온라인 사회참여 활동률	.112	.038	.200	2.951	.003	.244	4.102
	Z_온라인 경제 활동률	.038	.040	.068	.942	.347	.218	4.586
	Z_디지털 조력자	.142	.021	.252	6.827	.000	.823	1.216
	상호_검색이메일콘텐츠서비스이용률	.057	.038	.105	1.498	.135	.229	4.369
	상호_사회관계서비스 이용률	-.071	.042	-.125	-1.673	.095	.200	5.000
	상호_생활서비스 이용률	-.056	.040	-.099	-1.385	.166	.220	4.556
	상호_정보생산공유 활동률	-.026	.038	-.046	-.677	.498	.249	4.017
	상호_온라인 네트워킹 활동률	.080	.032	.144	2.493	.013	.337	2.969
	상호_온라인 사회참여 활동률	.044	.039	.079	1.128	.260	.231	4.332
	상호_온라인 경제 활동률	.023	.046	.041	.501	.616	.167	5.986
a. 종속변수: 삶의 만족도								

반면 ‘검색 및 이메일 콘텐츠 서비스 이용률($\beta=.105$, $p=.135$)’, ‘사회적 관계 서비스 이용률($\beta=-.125$, $p=.095$)’, ‘생활 서비스 이용률($\beta=-.099$, $p=.166$)’, ‘정보생산 공유 활동률($\beta=-.046$, $p=.498$)’,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률($\beta=.079$, $p=.260$)’, ‘온라인 경제 활동률($\beta=.041$, $p=.616$)’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조력자 조절효과 유의확률이 확인된 ‘온라인 네트워킹 활동률’은 조절효과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단순 기울기 검증(Simple Slope Test)을 하였다.

‘온라인 네트워킹 활동률’과 삶의 만족도 사이에서 디지털 조력자 조절 수준을 알아보는 단순기울기검증 그래프는 [그림 4-1]과 같다. 조절효과가 낮은 하위집단 그래프 기울기는 거의 변화가 없고 조절 수준이 높은 상위집단에서는 정(+)의 기울기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유의확률 결과값과 일치한다.

[그림 4-1] 온라인 네트워킹 활동률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디지털 조력자 상호작용



이 결과에 따라 X세대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줄 때 디지털 조력자 조절효과를 알아보는 가설의 검증결과 가설 2-5 ‘X세대 장애인의 온라인 네트워킹 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디지털 조력자 영향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제 5 장 결 론

제 1 절 결과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X세대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그 과정에서 디지털 조력자 조절효과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X세대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가설 일곱 개(가설1-1 ~ 가설1-7) 중에서 ‘PC 및 모바일 검색 및 이메일, 콘텐츠 서비스 이용률’과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률’만이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디지털 조력자’의 조절효과는 X세대 장애인의 ‘온라인 네트워크 활동률’과 삶의 만족도 사이에서만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조절변수 투입 전에 ‘온라인 네트워크 활동’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으나 조절변수 투입으로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켰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PC 및 모바일 검색, 이메일, 콘텐츠 서비스 이용률이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검색, 이메일, 콘텐츠 서비스는 디지털 시대의 기본 도구로 이를 이용하여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고 다양한 콘텐츠에 접근하여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사회적 관계 서비스 이용률이 X세대 장애인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결과가 의외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대상인 X세대 장애인은 PC통신 등 디지털 기술의 태동을 함께한 세대로 사회적 관계 서

비스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었다. 이러한 결과는 X세대 장애인이 사회적 관계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거나, 사회적 관계 서비스 이용을 통해 얻는 만족감이 크지 않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셋째, 생활서비스 이용률은 X세대 장애인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온라인을 통한 생활정보 습득이나 전자상거래 및 금융거래 등이 장애인이 적절하게 접근할 수 없거나 사용자 친화적이지 않아 삶의 만족도가 향상되기보다는 좌절감이나 이탈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장애인에 좀 더 친화적이고 이용이 수월한 생활서비스 콘텐츠 개발이 필요할 수 있다.

넷째, 정보생산 공유활동률은 X세대 장애인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X세대 장애인은 정보생산에 크게 참여하지 않거나 공유 콘텐츠에 대한 실질적인 참여나 피드백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다섯째, 온라인 사회참여와 관련된 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은 X세대 장애인들의 사회적 소외와 고립을 극복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며, 사회에 참했다고 느낄 수 있어서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X세대 장애인들이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 및 서비스를 개발하여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을 시사한다.

여섯째, 온라인 경제 활동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X세대 장애인들은 경제적 자립을 달성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온라인 경제 활동보다 오프라인 경제 활동을 통해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의 온라인 경제 활동에 대한 지원 및 훈련 프로그램을 조사하고 개선해야 함을 시사한다.

일곱째, 온라인 네트워킹 활동에서만 유일하게 디지털 조력자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는데 디지털 조력자를 조절변수로 투입하기 전에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가 조절변수로 투입한 이후에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준 것이다. X세대 장애인은 디지털 조력자로부터 적합한 온라인

네트워킹 플랫폼을 추천받고 더 쉬운 소통 방법 등을 도움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디지털 활용 능력이 낮거나 디지털 트렌드에 익숙하지 않아 발생하는 격차를 해소하여 온라인 네트워킹의 이점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삶의 만족도 또한 증가한 것으로 예상된다.

제 2 절 연구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X세대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X세대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므로 다른 세대와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과 비교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둘째, 아날로그 세대에서 태어나 성장 후 디지털 환경을 접한 X세대 장애인의 정보화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변수를 디지털정보화 활용만을 고려하여, 전반적인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X세대 장애인의 전반적인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모형에 통제변수 투입을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성별, 학력, 주거 형태, 수입 등의 차이에 의한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을 비교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비교적 간편하고 경제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지만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한계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X세대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X세대와 이웃한 M세대 및 베이비붐 세대의 디지털정보격차를 함께 연구하여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X세대 장애인의 보편적인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서

는 디지털정보화 수준의 요소인 디지털정보화 접근 수준과 디지털정보화 역량 수준 및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을 함께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성별, 학력, 주거 형태, 수입 등의 통제 변수를 투입하여 다양한 관점의 분석도 필요하다.

넷째,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 설문조사 이외에 면접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다양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방향으로 향후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장애인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과 삶의 만족도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권재숙. (2012). 고령장애인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신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정운, 김난도. (2019). 소비자학 분야에서의 세대의 개념, 범주 및 특성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30(5), 77-99.
- 권종실. (2023). 장애인의 사회적 자본과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정보 서비스 이용량 변화 간의 관계: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의 매개효과를 기반으로.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24(7), 145-154.
- 김봉섭, 고정현. (2020). 고령층 디지털 사회 자본에 대한 디지털 조력자 영향 연구: 디지털 정보 활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13(2), 27-57.
- 김연수. (1995). 정신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지지도에 대한 연구.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석사학위논문.
- 김용택, 윤창영, 장창호. (2003). 노인의 주관적 삶의 질의 구성요인과 측정도구 분석에 대한 연구: 시설노인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22, 313-331.
- 김유나, 박애리. (2022).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활용한 세대 집단별 가족가치관 유형화 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9(2), 203.
- 김지정. (2023). 정보소외계층 디지털정보격차 교차검증에 관한 연구-장애인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지혜. (2021). 신체장애인의 기술 접근성이 기술 수용 태도와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 조력자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한성, 이유신. (2014). 장애인의 가구소득과 취업여부가 여가활동 유형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장애와 고용, 24(4), 146-171.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22). MZ세대의 사회적경제 수요-공급측

- 면 잠재성 탐색-가치소비자 측면과 사회혁신 주체측면을 중심으로. 정책보고서, 2022-2.
- 남현주, 이현지. (2017). 장애인의 여가활동참여와 여가만족, 삶의 질과의 관계. 『재활복지』, 21(1), 121-140.
- 노승현, 김정석, 곽정란. (2022). 성인 지체장애인의 디지털 역량 및 디지털 조력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과 모바일 정보활용의 매개효과: 고령 및 청장년층 다중집단비교분석. 『재활복지』, 26(2), 55-76.
- 문영임, 이성규, 김지혜. (2021).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분석. 『정보화정책』, 28(4), 36-53.
- 문준호, 송명근, 이원석. (2022).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강원지역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공공정책 연구』, 39(2), 49.
- 문필동, 이정화. (2017). 고령장애인의 사회적 자본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 우울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직업재활연구』, 27(3), 133-160.
- 박경미. (2018). 중·고령 장애인의 인터넷 정보활용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참여의 조절효과 분석.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광순. (2004). 디지털위성방송의 초기수용자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8(1), 84-111.
- 박자경. (2009).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모형 구축 및 검증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재홍. (2003). 세대 개념에 관한 연구: 코호트적 시각에서: 코호트적 시각에서. 『한국사회학』, 37(3), 1-23.
- 백세현. (2019). 장애인의 정보화 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장애 유형별 차이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백세현, 이성규. (2021). 지체 장애인의 정보화 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52(52), 85-110.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약칭: 산재보험법) [시행 2023. 7. 1.] [법률 제18928호,

2022. 6. 10., 일부개정]

- 서유경. (2023). 청각장애인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특수아동교육연구』, 25(1), 215.
- 서은철. (2014). 장애인근로자의 지각된 사회경제적 지위와 일상생활만족의 종단적 인과모형. 『장애와 고용』, 24(2), 37-66.
- 서이중, 민경배. (2005). 사이버문화와 공동체문제: 인터넷 공동체의 사회사적 함의.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43-67.
- 서형준, 명승환. (2016). 국내 정보격차연구 동향: 국내학술지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9(4), 151-187.
- 송미영. (2011). 남녀 장애노인의 일상생활 만족도 비교분석. 『한국노년학』, 31(1), 143-155.
- 심선화, 정진화, 유재호. (2010). 인터넷 활용이 척수손상 환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대한작업치료학회지』, 18(4), 137-50.
- 오혜경, 백은령. (2003). 장애인의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구-서울지역 지체장애인을 중심으로-. 『직업재활연구』, 13(2), 157-181.
- 이계승. (2014).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변화양상과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 자본의 구성개념인 네트워크와 사회참여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5(2), 375.
- 이근희. (2023).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정신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민영. (2006). 정보소외계층의 정보접근신장에 대한 법적연구. 정보화정책. 13(1), 47-63.
- 이상희, 허진무, 김매이. (2022). 다층모형을 활용한 중·고령층 장애인의 스트레스, 인터넷 사용, 문화기반시설 및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 『여가학연구』, 20(3), 129-145.
- 이숙정, 육은희 (2014). 디지털 활용 격차와 결과 격차: 디지털 활용 능력과 정보적 지지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8(5), 206-232.
- 이영균, 김동규. (2007).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1(4), 223-250.

- 이우혁, (1995). 컴퓨터 통신 문화. 『초등우리교육』, 156-159.
- 이유우, 마성혁, 김자영, 조규형. (2022). 코로나 위기 시대에X세대 중년 근로자의 지속가능한 경력에 대한 근거이론 연구. 『경영교육연구』, 37(2), 411-449.
- 이중섭. (2009). 빈곤 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광주광역시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을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6(1), 79-105
- 이지수. (2007). 장애인의 주관적 삶의 질: 삶의 만족도 구조모형의 성별 비교. 『한국사회복지학』, 59(2), 89-114.
- 이채식, 문영임, 김지혜. (2022). 인터넷 비이용 장애인의 이용 의도 영향요인 연구: 자발적, 비자발적 비이용 집단 비교분석. 『경기연구원』. 24. 2005-8349
- 이혜민. (2020). 장·노년층의 디지털 리터러시 연구: 디지털 조력자의 역할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홍재, 박미경, 한수영. (2022).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디지털 조력이 정보격차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식정보기술학회 논문지, 17(1), 131-142.
- 이홍재, 박미경 (2020). 노인의 정보격차와 삶의 만족도: PC와 모바일기기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29(2), 209-241.
- 임정우. (2022). 신체장애인의 디지털기기에 대한 이용 태도, 이용 동기,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 간의 관계-디지털 조력 수준과 정보역량에 의한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종호, 이영미, 이은미. (2017). 장애인복지론. 서울:학지사.
- 임희섭. (1996). 삶의 질에 (質) 있어서의 현황과 과제 ; 삶의 질 의 개념적 논의. 한국행정연구. 5(1), 5-18.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약칭: 장애인고용법)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54호, 2022. 1. 11., 일부개정]
-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303호, 2023. 3. 28., 일부개정]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 2023. 1. 28.] [법률 제18334호, 2021. 7. 27., 일부개정]
- 장운정, 이채정. (2023). 세대별 행복의 차이 및 결정요인 분석. 『정책개발연

- 구』, 23(1), 129-165.
- 장창기, 성욱준. (2020). 중증장애인의 온라인 서비스 이용에 대한 디지털 정보격차의 영향: 온라인 접근성을 중심으로. 『정보화정책』, 27(3), 56-81.
- 전길남. (2011). 한국 인터넷 역사 프로젝트- 초기 한국 인터넷 略史(1982년~2004년).pdf. *The e-Bridge*(제12호). 10-33.
- 전상민. (2023). 디지털 소비자사회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세대 비교를 중심으로. 『소비자정책교육연구』, 19(2), 1-31.
- 정성호. (2003). N세대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의의. 『인문과학연구』, 11, 389-413.
- 정진민. (1992). 한국선거에서의 세대요인. 『한국정치학회보』, 26(1), 145-167.
- 조경진. (2015). 장애인 인권관련 규범에 대한 헌법적 고찰.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조동원. (2015). 한국의 디지털 문화사-컴퓨터의 도입과 대중화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논문집). 106, 183-216.
- 조성남, 박숙미. (2002). 한국의 세대관련 연구에 나타난 세대개념의 구분과 세대 갈등을 이해하는 방법에 관한 일 고찰. 『사회과학연구논총』, 9, 39-68.
- 조영태. (2021). 『인구 미래 공존』. 북스톤. 160-164.
- 조한진. (2011). 장애등급의 문제를 넘어서-장애의 정의·분류·측정-. 『재활복지』, 15(4), 1-26.
- 최셋별. (2018). 문화사회학으로 바라본 한국의 세대연대기.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문화원.
- 통계청 통계개발원. (2022). KOSTAT 통계플러스 Vol.17 2022.03.봄호,
-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조사. (2020). 민보경. 서울: 국회미래연구원.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 2022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창호. (2022). 코로나19 이후 장애인의 디지털기기 활용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 분석.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덕률. (2003). [특별연구]한국사회의 세대 연구. 『역사비평』, 150-191.

- 황상민, 양진영. (2002). 한국사회의 세대집단에 대한 심리학적 탐색 : 전이적 공존 관점을 통한 대학생 집단의 세대 이미지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6(3), 75-93.
- 황수경. (2004). WHO의 새로운 국제장애분류(ICF)에 대한 이해와 기능적 장애 개념의 필요성. 『노동정책연구』, 4(2), 128-149.
- 허은정, 김우성. (2003). 베이비붐세대 가계와X세대 가계의 소비지출 및 저축. 『소비문화연구』, 6(3), 79-97.
- 황주성. (2023). 코비드-19 이후 디지털 서비스 이용량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세대 간 격차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학회지』, 26(1):37-60.
- 황주희. (2019). 장애인의 정보 활용 격차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보화정책저널』, 26(3), 53-68.

2. 국외문헌

- Ali, M., Schur, L., & Blanck, P. (2011). What types of jobs do people with disabilities want?. *Journal of Occupational Rehabilitation*, 21(2), 199–210.
- Barber, N. A.(2013). Investigating the potentialinfluence of the internet as a new sociali-zation agent in context with other traditional socialization agents. *Journal of Marketing Theory and Practice*, 21(2), 179–194.
- Baumeister, Roy F. and Emily N. Garbinsky. “*Some Key Differences between a Happy Life and a Meaningful Life Forthcoming in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 Bernell, S. L. (2003).“Theoretical and applied issues in defining disability in labor market research”. *Journal of Disability Policy Studies*, 14(1): 36–45.
- Brown, I., Brown, R. I., Edwards, M., Bertelli, M. O., & Schalock, R. L. (2022). *Quality of life as an outcome measure. In Textbook of Psychiatry for Intellectual Disability and Autism Spectrum Disorder* (pp 349–367). Cham :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 Brunes, A., B Hansen, M., & Heir, T. (2019). Loneliness among adults with visual impairment: prevalence, associated factors, and relationship to life satisfaction. *Health and Quality of Life Outcomes*, 17(1), 1–7.
- Campbell, A. (1981). *The sense of well-being in America: Recent patterns and trends*. New York: McGraw-Hill Book Co.
- Dou, W., Wang, G., & Zhou, N.(2006). Generational and regional differences in media consumption patterns of Chinese generation X consumers. *Journal of Advertising*, 35(2), 101–110.

- Pew Research Center. (2019). Generations United: An Intergenerational View of American Society
- Ghimire, S., Baral, B. K., Karmacharya, I., Callahan, K., & Mishra, S. R. (2018). Life satisfaction among elderly patients in Nepal: associations with nutritional and mental well-being. *Health and Quality of Life Outcomes*, 16(1), 1–10.
- Gilman, R., Easterbrooks, S. R., & Frey, M. (2004). A preliminary study of multidimensional life satisfaction among deaf/hard of hearing youth across environment settings. *Social Indicators Research*, 66, 143–164.
- Grönvik, Lars. (2009). “Defining disability: effects of disability concepts on research outcome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Research Methodology* 12(1):1–18.
- Heinemann, A. W., & Whiteneck, G. G. (1995). Relationships among impairment, disability, handicap, and life satisfaction in persons with traumatic brain injury. *The Journal of Head Trauma Rehabilitation*, 10, 54–63.
- Helsper, E. J., & Van Deursen, A. J. (2017). Do the rich get digitally richer? Quantity and quality of support for digital engagement.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20(5), 700–714.
- Kertzer, D. I. (1983). 「Generation as a sociological problem」. 『*Annual review of sociology*』. 9(1). pp.125–149.
- Mannheim, K. (1952). *The problem of generations, in essays on the sociology of knowledge*.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Molnár, S. (2002). The Explanation Frame of the Digital Divide Issue. *Information Society*, 4: 102–118.
- Peiser, W. (2000). Cohort trends in media use in the United States. *Mass Communication & Society*, 3(2–3), 185–205.

- Parletta, N., Aljeesh, Y., & Baune, B. T. (2016). Health behaviors, knowledge, life satisfaction, and wellbeing in people with mental illness across four countries and comparisons with normative sample. *Frontiers in Psychiatry*, 7, 145.
- Pew Research Center. (2019). Generations in America and Europe: A Demographic Overview
- Renaud, K. & van Biljon, J. (2008). *Predicting technology acceptance and adoption by the elderly*: A qualitative study. pp.210–219 in ACM International Conference Proceeding of the 2008 annual research conference of the South African Institute of Computer Scientists and Information Technologists on IT research in developing countries. Wilderness.
- Tichenor, P. J., Donohue, G. A., & Olien, C. N. (1970). Mass media flow and differential growth in knowledge. *Public Opinion Quarterly* 34(2): 159–170.
- Vicente, M. & Lopez, A. (2008). “*Some empirical evidence on Internet diffusion in the New Member States and Candidate Countries of the European Union.*” *Applied Economics Letters*, 15, 1015–1018.
- Wei, K. K., Teo, H. H., Chan, H. C., & Tan, B. C. (2011). Conceptualizing and Testing a Social Cognitive Model of the Digital Divide.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22(1): 170–187.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NY: *Problems and Remedies*.

ABSTRACT

The impact of the level of digital information use on life satisfaction among Generation X disabled people
– moderation effects of digital assistants –

Jo, Gwanhoon

Major in Smart Convergence Consulting
Dept. of Smart Convergence Consulting
Graduate School of Knowledge Service
Consulting
Hansung University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re leading Korea to become an information society. At the center of the information society are information systems, which play an important role in economic and social activities as well as communication tools. However, due to digital information inequality, there are still marginalized groups such as people with disabilities, low-income people, farmers and fishermen, North Korean refugees, and marriage migra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digital information competence and life satisfaction and to analyze the role of digital enablers in order to understand and resolve the information gap experienced by Generation X people with disabilities, who have high

familiarity and utilization of digital technology in the dawn of the digital information age.

The specific contents of the study are, first, to investigate and evaluate the level of digital information utilization among Generation X people with disabilities, second,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level of digital information utilization on life satisfaction among Generation X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ird, to identify the moderating effect of digital enabler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igital information utilization and life satisfaction.

Accordingly, the scope of this study is: first, to investigate prior research and theoretical background related to Generation X disabled people, digital information, and life satisfaction; secon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Generation X disabled people's digital information utilization using data from the 2022 Digital Information Gap Survey; thir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Generation X disabled people's digital information utilization level and life satisfaction through empirical analysis, and to present the results of identifying the role of digital enablers.

Through this study, we aim to understand the information gap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Generation X and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digital informatization capabilities and life satisfaction in more depth to find ways to reduce the information gap.

We found that the level of digital information literacy among Gen Xers with disabilities partially influences life satisfaction. Use of PC and mobile search, email, and content services were found to have a positive definitional impact on life satisfaction.

Among the various digital activities, access to social services had no effect on life satisfaction, which is surprising, as it may be that Gen Xers with disabilities do not have difficulty accessing social services or do not derive much satisfaction from using them.

Activities related to online social engagement were found to have a positive definitional impact on life satisfaction among Gen Xers with disabilitie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efforts should be made to develop

and expand programs that encourage and support Gen Xers to utilize social engagement services.

The moderating effect of digital enablers nourished life satisfaction only for online networking activities, which may indicate that online networking activities are less accessible to people with disabilities in Generation X. The moderating effect of digital enablers on life satisfaction in some activities suggests that digital enablers need support to help people with disabilities acquire digital skills and provide them with appropriate information and tools.

Considering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the following suggestions can be made for future research. In order to accurately identify the digitalization characteristic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Generation X, it is necessary to conduct a comparative analysis with other generation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o investigate the general level of digitaliz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Generation X, it is necessary to study various aspects including the level of access to digital information, the level of digital information competence, and the level of digital information utilizat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analyze from a wider range of perspectives by considering control variables such as gender, education, housing type, and income, and to obtain data using methods such as interviews in addition to surveys for objective analysis. If these studies are conducted, it is expected that they will provide a more objective and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level of digital information utilization and life satisfac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Generation X.

【Key words】 People with Disability, Life Satisfaction, Generation x,
Digital Information Utilization Level, Digital Assistants